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학위논문

현대 한국어 ‘ㄷㄹ’ 연쇄에 대한 연구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응 연

현대 한국어 ‘ㄷㄷ’ 연쇄에 대한 연구

웅 연

본고는 다양한 ‘ㄷㄷ’ 연쇄 어형의 발음 양상을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ㄷㄷ’ 연쇄 표면형 선택의 조건이 무엇이고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음운론적·음성학적인 동기가 무엇이며 표면형 도출과정에 대한 타당한 기술이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ㄷㄷ’ 연쇄의 발음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중부방언을 구사하는 40명의 화자를 제보자로 선정하여 발음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ㄷㄷ’ 연쇄를 포함한 모든 어형은 크게 /ㄴㄴ/과 /ㄷㄷ/ 두 가지 표면형으로 실현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발음 양상을 바탕으로 ‘ㄷㄷ’ 연쇄 표면형 실현에 관여하는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언어 외적인 조건으로는 연령, 언어 내적인 조건으로는 단어 구성 요소의 어종, ‘ㄷㄷ’ 연쇄가 속해 있는 음운론적인 환경 등이 ‘ㄷㄷ’ 연쇄 표면형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ㄷㄷ’ 연쇄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동기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본고는 ‘ㄷㄷ’ 연쇄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동기는 ‘ㄷㄷ’ 연쇄가 음성적으로 ‘불과음-탄설음’의 연쇄로 발음되지 못하는 데에 있다고 보았다. 발음될 수 없는 음 연쇄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조정되기 마련인데 한국어에서 ‘ㄷㄷ’ 연쇄는 최종적으로 /ㄴㄴ/과 /ㄷㄷ/로 두 가지 발음이 가능한 연쇄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 밖에 ‘ㄷㄷ’ 연쇄가 /ㄴㄴ/과 /ㄷㄷ/ 두 가지 표면형으로 도출되는 과정에 대한 타당한 기술 방식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ㄷㄷ’ 연쇄가 /ㄴㄴ/으로 도출되는 과정은 일차적으로 ‘ㄷ’의 비음화가 적용되어 중간형 ‘ㄷㄴ’을 거쳤다가 다시 장애음의 비음화가 적용되어 /ㄴㄴ/까지 실현된 것으로 보았고, /ㄷㄷ/로 도출되는 과정은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된 결과로 보았다. 기존 논의에서 역행적 유음화의 적용환경은

오직 ‘ㄴㄹ’ 연쇄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보았지만 본고에서는 역행적 유음화의 적용 환경이 ‘ㄷㄹ’ 연쇄까지 확대된 것으로 주장하였다.

주요어: ‘ㄷㄹ’ 연쇄, 발음 양상, 음운 변동 동기, 표면형 선택, 도출, 역행적 유음화

학 번: 2017-23018

목 차

1. 서론	1
1.1 연구 목적	1
1.2 연구 대상	2
1.3 선행연구 검토	6
1.4 논의의 구성	14
2. ‘ㄷㄹ’ 연쇄의 발음조사 방법	15
2.1 조사대상	15
2.2 제보자	18
2.3 조사방법	20
3. ‘ㄷㄹ’ 연쇄의 발음 양상	25
3.1 10·20대 화자의 발음 양상	25
3.1.1 조사대상별 발음 양상	26
3.1.2 제보자별 발음 양상	30
3.2 30·40대 화자의 발음 양상	32
3.2.1 조사대상별 발음 양상	33
3.2.2 제보자별 발음 양상	35
4. ‘ㄷㄹ’ 연쇄의 발음에 대한 해석	37
4.1 표면형 선택의 조건	37
4.1.1 언어 내적인 조건	37
4.1.2 언어 외적인 조건	42

4.2 음운론적·음성학적 동기	48
4.3 표면형 도출과정	52
 5. 결론	 61
 참고문헌	 64
부록	68

1. 서론

1.1 연구 목적

현대 한국어에는 “음절 초성에 ‘ㄹ’이 오면 선행 음절 종성에 ‘ㄹ’ 이외의 자음이 올 수 없다.”라는 음절 배열 제약이 존재한다(이진호 2014:146). 이와 같은 제약을 위반하게 되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를 해결하기 마련인데, 각 자음(‘ㄹ’ 제외)과 ‘ㄹ’ 연쇄의 해결 방법은 아래와 같다.¹⁾

기저형	ㄱㄹ	ㅂㄹ	ㅇㄹ	ㄴㄹ	ㄷㄹ	ㄷㄷ
표면형	ㅇㄴ	ㅁㄴ	ㅇㄴ	ㄴㄴ	ㄴㄴ/ㄹㄹ	?

<표 1> ‘ㄹ’외 자음 - ‘ㄹ’ 연쇄의 기저형과 표면형

표면형이 어떻게 도출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ㄱㄹ, ㅂㄹ, ㅇㄹ, ㄴㄹ, ㄷㄹ’ 연쇄의 표면형 실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ㄷㄷ’ 연쇄의 표면형 실현에 있어서는 논의에 따라 서로 다른 관점이 있다. 오로지 하나의 표면형 /ㄴㄴ/만 인정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ㄴㄹ’ 연쇄와 같이 두 가지 표면형 /ㄴㄴ/과 /ㄹㄹ/이 모두 존재한다는 주장도 있다.

기존의 발음실태 조사 보고서(국립국어연구원 2001:25, 2002:25; 국립국어원 2012:277)를 참고해 보면, 한국어 화자들은 ‘ㄷㄷ’ 연쇄를 포함한 외래어(아웃렛, 핫라인, 풋라이트)나²⁾ 외래어를 포함한 혼종어(웃로비)를 크게 두 가지 발음형으로 발

1) 본고에서는 두 개의 독립된 음절이 연결되어 나타나는 경우, 즉 (C)VC₁+C₂V(C) 구조에서의 ‘C₁-C₂’를 자음 연쇄라 부른다. 자음 연쇄를 표기함에 있어, ‘파열음-유음’과 같이 자음 부류 이름으로 표기하기도 하고, 구체적인 어떤 두 개의 자음이 연결될 때는 ‘ㄱㄹ’, ‘ㄷㄹ’과 같이 한글 자음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2) 외래어와 외국어의 구분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송철의(1998:25)에서는 ‘외래어는 고유어와 함께 자국어의 일부이지만 외국어는 자국어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문제에 들어가면 어디까지 외래어이고 어디까지 외국어인지를 구별해 내기가 쉽지 않다’고 기술하였다. 여기서는 외래어와 외국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외래어’라 부르기로 한다.

음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하라인’은 /한나인/이나 /할라인/으로, ‘옷로비’는 /온노비/나 /올로비/로 발음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발음조사에서 다루었던 ‘ㄷㄹ’ 연쇄를 포함한 조사항목은 몇 개의 단어에만 국한된 것일 뿐이어서, 이들 발음이 현대 한국어에 존재하는 ‘ㄷㄹ’ 연쇄의 전반적인 발음 양상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대 한국어에서 ‘ㄷㄹ’ 연쇄를 포함한 어형은 앞에서 언급된 외래어, 그리고 고유어와 외래어로 이루어진 혼종어 외에도, ‘곶리도(串里島)’와 같이 한자 형태소로 만들어진 단어, ‘몇 리(里)’와 같이 고유어와 한자어로 이루어진 구 구성, ‘자켓류(jacket類)’처럼 외래어와 한자어로 구성된 단어도 있다. 이들도 모두 두 가지 발음형으로 실현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ㄷㄹ’ 연쇄가 포함된 모든 어형에서 /ㄷㄹ/과 /ㄷㄹ/ 두 가지 발음형이 선택적으로 실현된다면 발음형이 선택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무엇인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고는 발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종이나 음운론적 환경 등의 언어 내적인 조건과 연령, 성별 그리고 단어에 대한 화자의 친숙도 등과 같은 언어 외적인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발음조사를 통해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밖에 ‘ㄷㄹ’ 연쇄가 /ㄷㄹ/이나 /ㄷㄹ/로 변하는 음운론적 혹은 음성학적인 동기가 무엇이고, ‘ㄷㄹ’ 연쇄의 기저형에 어떠한 음운 규칙이 적용되어 표면형들이 얻어지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 이들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데 본고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ㄷㄹ’ 연쇄에서 음운 변동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동기와 ‘ㄷㄹ’ 연쇄 기저형에서 표면형까지 도출되는 과정에 대해 타당한 기술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연구 대상

현대 한국어에서 ‘ㄷㄹ’ 연쇄가 포함된 다양한 단어와 구를 본고의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³⁾ ‘ㄷㄹ’ 연쇄 단어나 구를 수집하는 데에 크게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하였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다.

3) 논의의 편리를 위해 ‘ㄷㄹ’ 연쇄가 포함된 단어는 ‘ㄷㄹ’ 연쇄 단어, ‘ㄷㄹ’ 연쇄가 포함된 구 구성은 ‘ㄷㄹ’ 연쇄 구 구성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일차적으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참조하여 살펴보았다.⁴⁾ 북한어를 제외하면 <표준국어대사전>에는 ‘ㄷㄹ’ 연쇄 단어가 총 17개 있다.⁵⁾

옛말	엇룽, 갑옷린을, 걸량, 걸량짚다
외래어	풋라이트, 핫라인, 핫^래버러토리 (hot laboratory), 마켓^리더 (market leader), 버킷림프종 (burkitt lymph腫), 유닛로드^시스템, 플랫^레이스 (flat race), 피켓^라인 (picket line), 마그넷^레저 (magnet ledger), 파일럿램프 (pilot lamp)
고유어+한자어	통꽃류(類), 갈래꽃류(類)
한자어	곶리도(串里島)

<표 2>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ㄷㄹ’ 연쇄 단어

<표준국어대사전>에는 ‘ㄷㄹ’ 연쇄를 포함한 단어가 양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이들 중에 외래어의 수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고유어와 한자어로 구성된 합성어 혹은 한자어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언어생활에 존재하는 모든 어형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인터넷에 있는 ‘ㄷㄹ’ 연쇄를 포함한 어형도 수집하였다.⁶⁾

실제 언어생활에서 나타난 ‘ㄷㄹ’ 연쇄를 갖는 어형을 확인하기 위해 ‘네이버 블로그(naver blog)’와 ‘네이버 뉴스(naver news)’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코퍼스를 활용하였다.⁷⁾ Python3.0을 활용하여 이 두 개의 코퍼스에서 나타나는 ‘ㄷㄹ’ 연쇄가

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1999년 간행되었는데 인터넷 사전(<http://stdweb2.korean.go.kr/main.jsp>)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소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ㄷㄹ, ㅌㄹ, ㅈㄹ, ㅊㄹ, ㅅㄹ’ 연쇄 포함된 단어를 찾았다. 본고에서는 ‘ㅌㄹ, ㅈㄹ, ㅊㄹ, ㅅㄹ’ 등은 모두 ‘ㄷㄹ’ 연쇄라 간주한다.

5) 기호 ‘^’ 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 쓸 수 있는 전문 용어나 고유명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6) 인터넷의 보급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활용하여 정보를 검색하기도 하고 글을 써서 올리기도 한다. 언중들이 즐겨 쓰는 인터넷은 어느 면에서 현실 언어생활을 반영할 수 있는 하나의 ‘데이터 베이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다고 본다.

7) 이 두 개의 코퍼스는 모두 서울대학교 국어국문과 박진호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구축한 코퍼스이다. 코퍼스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래와 같다.

ㄱ. “네이버 블로그 코퍼스”

－ 자료 수집 시간: 2017년.

－ 주요 내용: IT, 생활, 체육, 게임 등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블로그 글.

－ 규모: 248,407,622어절.

포함된 모든 어형을 추출하여 참고로 보았다.

이 밖에 선행 연구에서 나오는 ‘ㄷㄹ’ 연쇄 단어나 구도 함께 고려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많이 언급된 ‘ㄷㄹ’ 연쇄를 포함한 단어 중의 하나가 바로 한글 자모 ‘ㄷ’과 ‘ㄹ’ 연쇄인 ‘디글리올’이다(오정란 1995:153-155, Davis & Shin 1999:296, 고성연 2002:90, Seo 2007:67, 김성규·정승철 2013:170-171). 고유어에 ‘ㄹ’로 시작하는 단어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한글 자모의 이름은 고유어의 유일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Sohn(2008:46-49)에서는 ‘햇라인, 아웃렛, 꽃류, 그릇류, 버섯류, 이웃 러시아, 다섯 로봇’ 등과 같은 다양한 ‘ㄷㄹ’ 연쇄 단어와 구 구성을 예로 들었고 배주채(2013:251)에서는 ‘여섯륙(六), 물륙(陸)’과 같은 한자의 훈과 음이 연결되는 경우도 ‘ㄷㄹ’ 연쇄의 예로 들었는데 이와 같은 단어나 구 구성도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⁸⁾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수집한 ‘ㄷㄹ’ 연쇄의 단어와 구 일부를 어종과 형태구조에 따라 아래 같이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ㄷ. “네이버 뉴스 코퍼스”

- 자료 수집 시간: 2018년 1월~8월, 2017년, 2016년의 기사도 일부 포함.
- 주요 내용: 네이버에 있는 여러 신문사가 간행한 뉴스.
- 규모: 1,332,026,152 어절.

8) 이 밖에 신민수(2010:230)에서 ‘아웃렛’, 이세창(2006:651)에서는 ‘한발로, 송곳류’와 같은 ‘ㄷㄹ’ 연쇄가 포함된 외래어나 고유어와 한자어가 결합한 합성어도 예시로 제시하였다.

	한자어	
고유어	명사+(人)+명사	뒷란(欄), 윗란; 은빛란(蘭); 참숫란(卵) 등
	명사+접사	버섯류, 송곳류, 그릇류, 팔류, 꽃류, 벚꽃류, 갈래꽃류, 씨앗류; 햇별론, 달빛론, 그릇론, 귀뎃론, 밥술론; 산꽃로, 한발로, 달빛로, 벚꽃로, 진잠엿로, 연희맛로; 저발령, 달발령; 볼넷물 등
	접사+명사	옷릉골
	수관형사+명사/의존명사	다섯 량, 여섯 량, 몇 량; 몇 리 등
	한자 훈+음	그릇 린, 이웃 린, 옷깃 령, 소금발 로, 대그릇 락 등
한자어	명사+명사	삼꽃리, 갑꽃리, 독꽃리, 신꽃리 등
	명사+접사	대꽃로, 서꽃로 등
외래어	명사+접사	슛률(shoot率), 리셋률(rest率); 로봇류((robot類), 자켓류(jacket類), 도넛류(donut類); 초콜릿류(chocolate類); 티벳력(tibet力) 등
	명사+명사	트윗량 등
	외래어	
고유어	명사+(人)+명사	뒷라인, 뒷레이블, 뒷리본, 뒷라벨, 윗라인, 윗레벨, 윗링크, 꽃리스, 눈꽃리스, 꽃러그, 꽃리본, 꽃립스틱, 벚꽃라떼, 버섯램프, 버섯리조또, 버섯라면, 슛로스팅, 걸라인, 옷로비, 옷리폼, 현옷리폼, 옷렌탈 옷라벨, 바깥라인, 바깥로비, 팔라떼, 단팔라떼 녹차팔물, 끝라인, 끝렌즈, 걸레이스, 말벗로봇, 매운맛 라면, 단맛 레시피, 눈빛 레이저, 석류빛 레드, (가볼만한) 곳 리시트, 암컷 라쿤, 암컷 라이거 등
	수관형사+명사/의존명사	여섯 물, 여섯 라운드, 몇 리터, 몇 물, 몇 라운드, 몇몇 로봇 등
	관형사+명사	옛 로마제국, 옛 러시아, 옛 로고; 첫 라운드, 첫 레슨, 첫 리허설, 첫 런칭, 첫 리뷰; 온갖 리스트 등
	부사+명사/동사	곧 리더십이다, 곧 레슨하다; 햄쌀 밋 라면, 식단 밋 레시피; 정성껏 라면을 만들다; 마음껏 리필하다, 지금껏 리뷰하다; 어느덧 런칭하다(시간); 얼핏 로봇 같다 등
외래어	순 외래어	핫라인(hotline), 핫링크(hot link), 아웃라인(outline), 아웃렛(outlet), 아웃룩(outlook), 헤이즐넛 라떼, 코코넛 라떼, 더블샷 라떼, 풋로션, 풋레스트(footrest), 셋리스트(setlist), 굿럭, 슛리스트(shotlist), 풋락커(footlocker) 등
	고유어	
고유어	디글리을, 시웃리을, 히웅리을 등	

<표 3> ‘ㄷㄷ’ 연쇄 단어 및 구

1.3 선행연구 검토

(1) 표준 발음 규정

‘ㄷㄹ’ 연쇄의 발음이 <표준 발음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기 위해 종성과 ‘ㄹ’이 연결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가져와 살펴보고자 한다.

제19항 받침 ‘ㄱ, ㅇ’ 뒤에 연결되는 ‘ㄹ’은 /ㄴ/으로 발음한다.

담력/담:녁/ 침략/침:냐/ 강릉/강:능/ 향로/향:노/ 대통령/대:통녕/

[붙임] 받침 ‘ㄱ, ㅂ’ 뒤에 연결되는 ‘ㄹ’도 /ㄴ/으로 발음한다.

막론/막:논→망논/ 석류/석:류→성류/ 협력/협:력→협녕/ 법리/법:니→법니/

제20항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

(1) 난로/날:로/ 신라/실:라/ 천리/철:리/ 광한루/광:할루/ 대관령/대:괵령/

(2) 칼날/칼:랄/ 물난리/물:랄리/ 줄넘기/줄:럼끼/ 할는지/할:른지/

[붙임] 첫소리 ‘ㄴ’이 ‘ㄷ’, ‘ㅌ’ 뒤에 연결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닿는/달:른/ 뚫는/뚫:른/ 핏네/할:레/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ㄹ’을 /ㄴ/으로 발음한다.

의견란/의:견란/ 임진란/임:진란/ 생산량/생:산냥/ 결단력/결:판력/ (생략)

<표준 발음법> 제5장 제19항, 제20항

<표준 발음법> 제19항은 ‘ㄹ’의 앞에 비음 ‘ㄱ, ㅇ’이 오는 경우와 장애음 ‘ㄱ, ㅂ’이 오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치조 비음인 ‘ㄴ’ 뒤에 ‘ㄹ’이 오는 경우는 그 발음 양상이 상대적으로 복잡해서 따로 제20항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 발음법에서 종성에 오는 ‘ㄷ’과 초성에 출현하는 ‘ㄹ’이 연결될 때의 표준 발음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은 이진호(2014:317)에 따르면, ‘ㄹ’의 비음화는⁹⁾ 주로

9) ‘ㄹ’의 비음화는 ‘ㄹ’ 이외의 자음 뒤에서 ‘ㄹ’이 ‘ㄴ’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이는 ‘비음화’(오정란

한자어에서 일어나는데 한자음은 ‘ㄷ’으로 끝나는 경우가 없으므로 ‘ㄷ’과 ‘ㄹ’이 연결되는 경우의 표준 발음을 규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ㄷ’과 ‘ㄹ’이 만나는 환경은 한자어에 국한되지 않는다.

표준 발음법에서 ‘ㄷㄹ’ 연쇄의 발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서 ‘ㄷㄹ’ 연쇄를 포함한 몇 개의 단어의 발음형을 제시하였다.

- (1) 통꽃류 /-꼴류/, 갈래꽃류 /--꼴류/, 꽃리도(串里島) /곤니-/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꽃류’를 /-꼴류/, ‘꽃리-’를 /곤니-/로 발음해야 한다는 것은 표준 발음법 제19항 붙임에서 설명한 내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즉, ‘ㄷ’은 ‘ㄱ, ㄴ’과 마찬가지로 뒤에 ‘ㄹ’이 이어서 오면 ‘ㄹ’이 먼저 ‘ㄴ’으로 되고 그 다음에 선행하는 ‘ㄷ’은 ‘ㄴ’의 영향을 받아 ‘ㄴ’으로 발음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ㄷㄹ’ 연쇄의 표준 발음은 /ㄴㄴ/으로 보고 있다.¹⁰⁾ 그러나 발음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표준 발음은 현실 발음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보이기도 한다(이진호 2012:30). 가령 ‘광안리, 신선로’와 같은 단어에서 ‘ㄴㄹ’ 연쇄를 표준 발음대로 /ㄴㄴ/으로 발음해야 하지만 /ㄹㄹ/로 발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김선철 2006:52-53). 그렇다면 ‘ㄷㄹ’ 연쇄가 포함된 단어도 이처럼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 사이에 차이를 보이는가. 이에 대해 ‘ㄷㄹ’ 연쇄에 관한 발음조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1995), ‘순행 비음화/상호 비음화’(이동석 2005:124), ‘순행적 비음화’(김경아 2000:157) ‘치조 비음화’(김성규·정승철 2013:170), ‘설측음의 비음화’(신지영·차재은 2003:208), ‘/ㄹ/의 /ㄴ/되기’(구현옥 2010:231)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진호(2017:142-143)에 따르면 음운 현상의 명칭을 정할 때는 입력형과 출력형을 비교하여 달라진 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하였다. ‘비음화’와 같은 용어는 입력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아 이를 사용하면 평파열음의 비음화 현상과 혼동할 수 있어 적절한 용어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혼동을 막기 위해 ‘ㄹ’의 비음화로 부르기로 한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도 이를 따라 ‘ㄹ’ 이외의 자음 뒤에서 ‘ㄹ’이 ‘ㄴ’으로 바뀌는 현상을 ‘ㄹ’의 비음화라고 부르기로 한다.

10)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의 교재에도 ‘ㄷㄹ’ 연쇄를 /ㄴㄴ/으로 규정한 사례가 보인다.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5:62)에서 ‘ㄹ’ 앞에 ‘ㄹ’이 아닌 받침이 오면 ‘ㄹ’이 /ㄴ/으로 발음된다고 기술하면서 ‘버섯 라면’의 발음은 /버선라면/이라고 밝히고 있다.

(2) 발음실태 조사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ㄷㄹ’ 연쇄를 한국어 화자들이 어떻게 발음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한 경우는 없어 보인다. ‘ㄷㄹ’ 연쇄를 포함한 몇 개의 단어에 대한 발음실태 조사(국립국어연구원 2001, 2002, 2012)와 ‘ㄷㄹ’ 연쇄를 가진 ‘아웃렛’의 발음에 대한 조사(최진희 2010)가 있는데 이들 조사의 구체적인 결과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국립국어연구원(2001)은 외래어 발음 실태에 대한 조사이다. 여기서는 표기와 실제 발음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외래어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이들과 관련된 음운 현상들을 유형별로 나눴는데, 이 중에 ‘ㄷㄹ’ 연쇄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외래어 ‘아웃렛, 핫라인’처럼 ‘ㄷ’과 ‘ㄹ’이 이어지는 예들에 <표준 발음법>을 확대하여 적용한다면 이 경우의 ‘ㄹ’도 /ㄴ/으로 발음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ㄷㄹ/로 많이 발음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중부방언 화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아웃렛		옷로비		핫라인	
발음형	제보자수	발음형	제보자수	발음형	제보자수
ㄷㄹ	288	ㄷㄹ	63	ㄷㄹ	157
ㄴㄴ	34	ㄴㄴ	147	ㄴㄴ	91
ㄴㄷ	29	ㄴㄷ	71	ㄴㄷ	88
ㄷㄷ	16	ㄷㄷ	86	ㄷㄷ	24
				ㄷㄴ	7

<표 4> ‘ㄷㄹ’ 연쇄 단어의 발음 양상(국립국어연구원 2001:25)

한편 국립국어연구원(2002)에는 단어 ‘풋라이트(footlight)’가 조사되어 있는데 56.67%의 제보자가 /푼나이트/로 발음하였고, 13.33%가 /폴라이트/, 13.81%가 /폴라이트/, 11.43%가 /푼라이트/로 발음하였다고 보고되어 있다. 또한 2001년 ‘외래어 발음실태 조사’에서 조사된 ‘아웃렛, 옷로비, 핫라인’과 함께 볼 때 ‘아웃렛’과 ‘핫라인’은 각각 /아울렛/과 /할라인/으로 발음한 제보자의 수가 많았으며, ‘옷로비’와 ‘풋라이트’는 각각 /온노비/와 /푼나이트/로 발음한 제보자의 수가 많아서 외래어 발음

을 정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보충적인 조사도 요구된다고 하였다.

풋라이트		
발음형	제보자수	비율
ㄴㄴ	119	56.67%
ㄹㄹ	28	13.33%
ㄷㄹ	29	13.81%
ㄴㄹ	24	11.43%
기타	10	0.48%

<표 5> ‘ㄷㄹ’ 연쇄 단어의 발음 양상(국립국어연구원 2002:25)

마지막으로 국립국어원(2012)에서는 ‘ㄴㄹ’ 연쇄와 비슷한 양상을 띠는 것으로 기대되는 외래어의 ‘ㄷㄹ’ 연쇄가 어떻게 발음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조사 단어는 ‘핫라인’ 하나뿐이었다. 조사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핫라인		
발음형	제보자수	비율
ㄷㄹ	100	19.8%
ㄹㄹ	127	25.2%
ㄴㄴ	254	50.4%
기타	23	4.6%

<표 6> ‘ㄷㄹ’ 연쇄 단어의 발음 양상(국립국어원 2012:277)

최진희(2010)에서는 대전 지역의 고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비음화와 유음화의 발음실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된 단어 중 ‘ㄷㄹ’ 연쇄가 포함된 ‘아웃렛’이 있는데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아웃렛	
발음형	제보자수
ㄹㄹ	96
ㄴㄴ	3
ㄴㄹ	1

<표 7> ‘ㄷㄹ’ 연쇄 단어의 발음 양상(최진희 2010:13)

이번 조사결과는 국립국어연구원(2001)과 마찬가지로 발음형에 /ㄹㄹ/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아웃렛’의 발음형에 /아울렛/이 많은 이유는 실생활에서 ‘아웃렛’의 표기가 이미 ‘아울렛’으로 굳어진 상황과 관련 있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 ‘ㄷㄹ’ 연쇄에 대한 발음실태 조사는 주로 ‘핫라인, 아울렛, 플라이트’와 같은 외래어 그리고 ‘옷로비’와 같은 혼종어 몇 개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ㄷㄹ’ 연쇄가 포함된 외래어(혼종어)의 발음실태를 어느 정도는 반영할 수 있으나 현대 한국어 가운데 ‘ㄷㄹ’ 연쇄를 갖는 어형의 발음 양상을 모두 나타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더 풍부한 ‘ㄷㄹ’ 연쇄가 포함된 어형의 발음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규칙적용 및 표면형 도출

기존 연구에서 ‘ㄷㄹ’ 연쇄에의 음운 규칙의 적용과 표면형 도출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장애음(ㅂ, ㄷ, ㄱ)-ㄹ’의 일부로 다루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여기서는 ‘ㄷㄹ’ 연쇄와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한다.

‘ㄷㄹ’ 연쇄 기저형에 음운 규칙이 적용되어 출력형까지 도출되는 과정에 관하여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ㄷㄹ’의 도출 과정에 나타난 중간형에¹¹⁾ 따라, 즉 ‘ㄹ’이 ‘ㄷ’ 뒤에서 먼저 ‘ㄴ’으로 변하는지 아니면 ‘ㄷ’이 ‘ㄹ’의 앞에서 먼저 ‘ㄴ’으로 변하는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2) ㄱ. ㄷㄹ → ㄷㄴ → ① ㄴㄴ ② ㄴㄴ/ㄹㄹ
 ㄴ. ㄷㄹ → ㄴㄹ → ① ㄴㄴ ② ㄴㄴ/ㄹㄹ

(2ㄱ).①과 같은 과정을 주장하는 논의에는 허웅(1983:114), 배주채(2013:251), 김성규·정승철(2013:170-171), 신승용(2013:159), 이진호(2014:170), 이문규(2015:153) 등이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ㄷ’ 뒤에 ‘ㄹ’이 오면 ‘ㄹ’이 ‘ㄴ’으로 바

11) 중간형은 생성음운론에서 기저형으로부터 표면형을 도출할 때 그 중간 단계에 나타나는 형태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이진호 2017:464). 중간형들이 존재하는 층위를 중간층위라고 부른다. 중간층위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이진호(2006)을 참조할 수 있다.

끼고 중간형 ‘ㄷㄴ’에서 장애음의 비음화가 적용되어 /ㄴㄴ/으로만 실현된다. 예를 들어, ‘핫라인(hot line)’은 ‘ㅅ’이 먼저 평파열음화에 의해 ‘ㄷ’으로 바뀌고 ‘ㄷ’ 뒤에서 ‘ㄴ’의 비음화가 적용된 후 비음 동화가 더 일어나 최종적으로 /한나인/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앞에서 ‘ㄷㄴ’ 연쇄의 발음실태에 따르면 ‘핫라인’은 /한나인/으로 발음될 뿐만 아니라 /할라인/으로 발음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설명방식은 /할라인/이 출현하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중간형의 설정에 대해서는 일치하지만 표면형 실현에 있어 김경아(2004:29)는 (2ㄱ).①과 다르게 주장하고 있다. 이 논의에서는 ‘ㄷㄴ’ 연쇄를 포함한 단어 여러 개를 예로 들었고 이들 단어의 도출과정과 표면형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단어	도출 과정
옷 로비	온로비→온노비→온노비/올로비
윳 라인	원라인→원나인→원나인/윳라인
첫 리허설	천리허설→천니허설→천니허설
푸른빛 렌즈	푸른빈렌즈→푸른빈넌즈→푸른뺨넌즈
*디글리울(디근니울~디글리울) ¹²⁾ 티은리울/시웃리울/지웃리울/치웃리울/히웅리울	

<표 8> ‘ㄷㄴ’ 연쇄 도출에 대한 설명(김경아 2004:29)

이 논의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ㄷㄴ’ 연쇄의 표면형은 어떤 단어에는 /ㄴㄴ/과 /ㄷ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즉, 위에서 제시한 (2ㄱ).②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¹³⁾ 여기서 표면형 /ㄴㄴ/이 나오는 과정은 (2ㄱ).①의 주장과 차이가 없으나 /ㄷㄴ/이 나오는 것은 음운 변동에 의한 도출 과정으로 설명하는 대신 /ㄴㄴ/에 대한 반작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진호(1998:105, 2008:205)에서도 방언형에 ‘천년/철련/’, ‘손녀/술려/’와 같이 ‘ㄴㄴ’이었던 것이 ‘ㄷㄴ’로 출현하기도 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ㄷㄴ’ 연쇄 표면형에 /ㄷㄴ/이 나오는 것은 유음화와

12) ‘디글리울’의 도출과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13) 아쉬운 점은 ‘ㄷㄴ’ 연쇄 구 구성 중에 ‘첫 리허설’과 ‘푸른빛 렌즈’는 /천니허설/, /푸른빈넌즈/으로 실현되는데 이는 왜 /철리허설/, /푸른빌렌즈/, 즉 /ㄷㄴ/로 실현되지 않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비음화의 경쟁 관계에서 비롯된 유추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2ㄴ)의 주장에 따르면 ‘ㄷ’은 먼저 공명음인 ‘ㄹ’의 영향을 받아 중간형 ‘ㄴㄹ’로 실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주장을 지지하는 논의에는 오정란(1995:153-155), 신지영·차재은(2003:208), 김현(2011:147), 양순임(2012:211-214) 등이 있다. 그러나 ‘ㄴㄹ’와 같은 중간형을 거쳐 나오는 표면형에 대해서는 각자 다르게 보고 있다.

양순임(2012:213)에서는 중간형 ‘ㄴㄹ’에서 ‘ㄹ’의 비음화를 적용하여 바로 표면형 /ㄴㄴ/으로 실현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가령 ‘몇 리’는 평폐쇄음화가 적용되어 ‘면리’가 되고, 파열음의 공명음화가 적용되어 ‘면리’가 된 뒤 다시 ‘ㄹ’의 비음화를 거쳐 최종적으로 표면형 /면니/가 된다는 것이다. 오정란(1995), 변용우(2018)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몇 리’가 실제로 /면리/로 발음되기도 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이와 같은 설명 방식은 역시 (2ㄱ).①과 같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바로 ‘핫라인’이 /할라인/으로 발음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신지영·차재은(2003)에서는 ‘ㄷㄹ’ 연쇄가 ‘ㄴㄹ’의 중간형을 거쳐 /ㄴㄴ/와 /ㄹㄹ/ 두 가지 표면형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간형 ‘ㄴㄹ’ 연쇄에서 ‘ㄹ’의 비음화가¹⁴⁾ 적용되면 /ㄴㄴ/으로 실현되고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되면 /ㄹㄹ/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가령 ‘옷로비’는 /온노비/와 /올로비/ 두 가지 발음형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ㄷㄹ’ 연쇄가 중간형 ‘ㄴㄹ’ 연쇄를 거쳐야 비로소 나올 수 있는 결과라고 보고 있다.

한편 (2ㄴ)에 대한 반론은 다음과 같다. 신승용(2013:159)에서는 ‘ㄹ’ 앞에 놓인 ‘ㄴ’, ‘ㄱ’과 같은 장애음이 비음으로 교체되는 음성적인 동기는 전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진호(2012:326, 2014:171)에서는 역사적으로 비음이 아닌 자음 뒤에서도 ‘ㄹ’이 ‘ㄴ’으로 바뀌는 변화가 많이 나타났지만 ‘ㄹ’ 앞의 장애음이 비음으로 바뀌는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는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매우 후대에 나타나 그 신뢰성마저 의심된다고 하였다.

14) 원문은 설측음의 비음화라고 하였다. 본고에서 논의의 동일성을 위해 ‘설측음’을 ‘ㄹ’로 바꿔서 말한다는 것을 여기서 밝혀 둔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ㄷㄹ’ 연쇄의 도출과정 및 그의 표면 실현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의 의견들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대표 논저	예	도출 과정	도출 과정 설명
1	허웅(1983)	몇 량	ㄷㄹ→ㄷㄴ→ㄴㄴ	‘ㄹ의 비음화’가 먼저 적용되고 비음 동화가 일어난다.
	김성규·정승철(2013)	디글리을		
	배주채(2013)	여섯 룩		
	신승용(2013)	몇 리		
	이진호(2014)	다섯 량		
	이문규(2015)	햇라인		
2	김경아(2004)	옷로비 등	ㄷㄹ→ㄷㄴ→ㄴㄴ(ㄹㄹ)	‘ㄹ의 비음화’가 먼저 적용되고 비음 동화가 일어난다. /ㄹㄹ/은 /ㄴㄴ/에 대한 반작용임.
3	신지영·차재은(2003)	옷로비	ㄷㄹ→ㄴㄹ→ㄴㄴ/ㄹㄹ	‘장애음의 비음화’가 먼저 일어나고 설측음의 비음화/유음화가 선택적으로 적용됨.
4	양순임(2012)	몇 리	ㄷㄹ→ㄴㄹ→ㄴㄴ	‘ㄷ’이 공명음으로 동화된 후 비음 동화가 적용됨.

<표 9> ‘ㄷㄹ’ 연쇄 규칙적용 및 도출과 관련된 논의

그러나 아쉬운 점은 기존 논의에서 들었던 ‘ㄷㄹ’ 연쇄의 예는 그 수가 매우 적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논의에서 ‘ㄷㄹ’ 연쇄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즉 실제 표면형이 무엇인지를 연구자 본인의 직관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이다. 연구자의 언어 직관 혹은 발음 습관의 차이로 인해 표면형이 다르게 판단되고 논의 방식까지 달라진 것은 언어 현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ㄷㄹ’ 연쇄가 가진 다양한 어형의 실제 발음형을 확인한 뒤, ‘ㄷㄹ’ 연쇄에 어떠한 음운 규칙이 적용되어 표면형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4 논의의 구성

본고는 ‘ㄷㄹ’ 연쇄의 발음 양상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ㄷㄹ’ 연쇄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제1장에서는 먼저 연구 목적, 연구 대상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선행 연구 검토에서 ‘ㄷㄹ’ 연쇄와 관련된 표준 발음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ㄷㄹ’ 연쇄 단어에 대한 발음실태 조사의 결과를 정리하였으며 기존 논의에서의 ‘ㄷㄹ’ 연쇄가 기저에서 표면형으로 도출되는 과정에 대한 기술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제2장에서는 주로 본 연구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ㄷㄹ’ 연쇄 발음실태 조사의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조사대상 및 제보자에 대해 밝혔고 조사결과를 어떻게 판정하고 정리하였는지도 설명하였다.

제3장은 주로 ‘ㄷㄹ’ 연쇄의 발음 양상에 대해 살핀 내용으로 구성된다. 제보자의 연령대에 따라, 또 같은 연령대에서 조사대상 및 제보자에 따라 ‘ㄷㄹ’ 연쇄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 구체적인 양상을 제시하였다. 또한 ‘ㄷㄹ’ 연쇄의 표면형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ㄴㄹ’ 연쇄의 실현 양상도 함께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먼저 ‘ㄷㄹ’ 연쇄의 표면형이 선택적으로 실현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ㄷㄹ’ 연쇄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동기가 무엇이고 ‘ㄷㄹ’ 연쇄에 어떠한 음운 규칙이 적용되어 표면형이 실현되는지의 과정에 대해 타당한 설명이 무엇인지 논의하였다.

제5장은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본고의 부족한 점을 밝힘으로써 마무리하였다.

2. ‘ㄷㄹ’ 연쇄의 발음조사 방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ㄷㄹ’ 연쇄에 대한 발음실태 조사이든 음운론적인 분석이든 대부분 ‘ㄷㄹ’ 연쇄를 갖는 몇 개의 단어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실제 언어생활에는 더 많은 ‘ㄷㄹ’ 연쇄를 포함한 어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의 발음형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ㄷㄹ’ 연쇄를 포함한 많은 어형을 대상으로 발음실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장에서는 조사대상, 제보자, 조사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2.1 조사대상

제1장에서 서술하였듯이 본고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 ‘네이버 블로그/뉴스 코퍼스’ 그리고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ㄷㄹ’ 연쇄를 포함한 단어와 구를 수집하였다. 이 중 ‘ㄷㄹ’ 연쇄 단어와 구 일부를 선정하여 조사하기로 했다.

‘ㄷㄹ’ 연쇄를 갖는 단어를 선정할 때에는 형태구조, 어종, 음절수, ‘ㄷㄹ’ 연쇄가 단어 내에 출현하는 위치 등의 조건을 고려하였다. 이는 이와 같은 언어 내적인 조건이 ‘ㄷㄹ’ 연쇄의 발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본고에서는 일차적으로 4음절 이하이면서 ‘ㄷㄹ’ 연쇄가 포함된 단어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음절수를 제한한 것은 한국어에서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가 주로 1~4 음절어인 것(배주채 2013:97)을 참고한 까닭이다.¹⁵⁾ ‘ㄷㄹ’ 연쇄를 지닌 4음절 이하의 단어를 골라낸 뒤, 단어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에 따라 나누었고 합성어와 파생어는 다시 어종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 다음에 이 단어들을 음절수 및 ‘ㄷㄹ’ 연쇄가 단어 내에 출현한 위치에 따라 나누었다. 또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분류한 후 같은 조건에 속하는 단어 중에 가능한 한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단어

15) 배주채(2013:97)에서 기초어휘 2700단어를 가지고 음절수에 따라 단어 수와 그 비율에 대해 통계한 결과 아래 표와 같았다.

음절수	1	2	3	4	5	계
단어 수	271	1371	606	426	26	2700
비율(%)	10.04	50.78	22.44	15.78	0.96	100.00

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조사대상의 다양성을 고려해서 일부 고유명사(지명, 한글 자
모 이름)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단어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정한 조사단어는 아래 표와 같다.

합 성 어	①	고+외 ¹⁶⁾	1+2 ¹⁷⁾	꽃리스, 팔라떼, 옷리폼
			1+3	꽃립스틱, 걸레이스, 숏로스팅
			2+2	벚꽃라떼, 버섯라면, 바깥라인
		고+ㅅ+외	--	윗레벨, 뒷라이닝, 아랫라인
	②	외	1+2	햇라인, 굿리치
			2+1	아웃렛, 아웃룩
			1+3	셋리스트, 풋레스트
			2+2	티켓링크, 로봇랜드
	③	고	--	디글리올, 시옷리올
	④	한	--	꽃리도, 삼꽃리
파 생 어	①	고+한	1/2+1	옛류, 버섯류
			2/3+1	벚꽃로, 연희맛로
	②	외+한	1/2+1	숏물, 리셋물
			2/3+1	자켓류, 초콜릿류

<표 10> 조사대상(1): ‘ㄷㄹ’ 연쇄 단어

한편 ‘ㄷㄹ’ 연쇄를 포함한 구 구성도 조사하였다. 고성연(2002), 김경아(2004),
신지영(2016) 등에 따르면 화자가 단어와 단어의 경계에 대한 인식이 강하면 ‘ㄷㄹ’
연쇄의 발음형에서 비음화, 즉 /ㄴㄴ/의 실현이 더욱 우세한 것으로 보고 있다.¹⁸⁾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어 사이에 더 확연한 경계가 있는 경우 ‘ㄷㄹ’ 연쇄가 어떻
게 발음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 구성도 함께 조사대상으로 정하기로 하였

16) ‘고+외’, ‘고+ㅅ+외’, ‘외’, ‘한’, ‘고’, ‘고+한’, ‘외+한’은 각각 ‘고유어+외래어’, ‘고유어+ㅅ+외
래어’, ‘외래어’, ‘한자어’, ‘고유어’, ‘고유어+한자어’, ‘외래어+한자어’를 가리킨다.

17) ‘1+2’는 ‘ㄷ’이 중성인 1음절어와 ‘ㄹ’이 초성인 2음절어와 결합된 단어를 의미한다. 표에 있는
‘2+2’, ‘1+3’도 이와 유사한 뜻을 가진다.

18)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4.1에서 다루고자 한다.

다.¹⁹⁾ ‘ㄷㄹ’ 연쇄를 포함한 구 구성을 선정할 때에는 주로 어종과 형태구조를 고려하였고 단어를 선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되도록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을 선정하였다. 선정한 ‘ㄷㄹ’ 연쇄 포함된 구 구성은 아래와 같다.

①	고+외	명사+명사	매운맛 라면, 암컷 라이거
		수관형사+명사	여섯 롤, 몇 리터
		관형사+명사	첫 라운드, 옛 러시아
		부사+동사	마음껏 리필하다, 줄곧 리드하다
②	고+한	수관형사+의존명사	여섯 량, 몇 리
		한자 음훈	그릇 린, 이웃 린

<표 11> 조사대상(2): ‘ㄷㄹ’ 연쇄 구

현대 한국어에서 ‘ㄷㄹ’ 연쇄는 /ㄷㄹ/와 /ㄷㄹ/ 두 가지 발음형이 공존하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본고에서 ‘ㄷㄹ’ 연쇄의 발음 양상을 중심으로 살피되 같은 제보자가 ‘ㄷㄹ’ 연쇄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ㄷㄹ’ 연쇄의 발음과 ‘ㄷㄹ’ 연쇄의 발음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선정한 ‘ㄷㄹ’ 연쇄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는 ‘ㄷㄹ’ 연쇄가 포함된 몇 개의 단어와 구도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ㄷㄹ’ 연쇄 단어와 구 구성의 목록은 아래 표에서 제시한 것과 같다.²⁰⁾

19) 구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학자에 따라 다르다는 점은 이미 많은 논의에서 언급되었다(장소원·김혜영 2016, 신승용 2011). 또한 합성어와 구의 구분도 하나의 어려운 문제이다(Martin Haspelmath 2002(오규환 외 역 2015:357-366)). 하지만 본고의 목적은 단어와 단어 사이에 더 확실한 경계가 있는 경우 ‘ㄷㄹ’ 연쇄의 발음 양상을 살피는 데에 있으므로 합성어와 구의 구분은 간단히 띄어쓰기의 유무로 정하였다. 후술하겠지만 본 조사에서는 ‘문장 읽기’의 방법으로 발음을 조사하였는데, 지면에 단어와 단어를 띄어 쓰면 화자로 하여금 해당 어형을 구로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것이다.

20) ‘ㄷㄹ’ 연쇄인 경우 ‘ㄷㄹ’ 연쇄와 달리 ‘고유어+ㅅ+외래어’인 단어와 ‘수사+명사, 수사+의존명사’인 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21) ‘綱(리)’의 훈은 원래 ‘끈’이다. 여기서 ‘ㄷㄹ’ 연쇄에서 선정하는 한자의 훈과 음의 구 구성인

‘ㄴㄹ’ 연쇄 단어

합 성 어	①	고+외	눈라인, 당근라페
	②	외	온라인, 스킨로션
	③	고	니은리을
	④	한	동안리
파 생 어	①	고+한	덧신류
	②	외+한	치킨류

‘ㄴㄹ’ 연쇄 구

①	고+외	명사+명사	눈 레이저 수술
		관형사+명사	한 라운드
②	고+한	부사+동사	당분간 리필하다
		한자 음훈	노끈 리 ²¹⁾

<표 12> 조사대상(3): ‘ㄴㄹ’ 연쇄 단어와 구

2.2 제보자

발음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언적인 요소를 배제하고자 주로 서울, 경기 출신으로 중부방언을 사용한 것으로 기대되는 화자를 제보자로 삼았다.²²⁾ 또한 ‘ㄴㄹ’ 연쇄의 발음 양상은 화자의 연령대에 따라 확실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령대에 따라 10대, 20대, 30대, 40대 화자 각 10명씩, 총 40명 화자를 대상으로 하였다.²³⁾ 10대 화자는 14세~18세 (평균연령: 15.7 표준편차: 1.25)이고 20대 화자는 20세~28세 (평균연령: 25 표준편차: 2.32)이며, 30대 화자는 30세~39세 (평균연령: 35 표준편차: 2.62)이고 40대 화자는 40~49세 (평균연령: 43 표준편차: 2.1

‘그릇 린’, ‘이웃 린’의 음절수를 맞추기 위해 ‘끈’을 대신 ‘꾼’의 유의어인 ‘노끈’을 쓴 것이다.

22) ‘ㄴㄹ’ 연쇄의 경우 이진호(1998:102)에 따르면 표면형 /ㄴㄴ/과 /ㄹㄹ/이 공존하는 것은 모든 방언, 모든 연령층에서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남부 방언에서는 /ㄹㄹ/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 강하고 중부방언에서는 /ㄴㄴ/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23) 본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ㄴㄹ’ 연쇄 발음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시행하였다. 예비조사에서는 20대 화자 세 명(남성 2명(서울, 충청북도 출신), 여성 1명(서울 출신)), 40대 화자 세 명(남성 1명(전라도 출신), 여성 2명(경기도 출신))을 대상으로 ‘ㄴㄹ’ 연쇄의 발음 양상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20대 화자는 상대적으로 ‘ㄴㄹ’ 연쇄를 /ㄹㄹ/로 발음하는 경향이 보이고 40대 화자는 /ㄴㄴ/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보인다. 그러나 예비조사에서 제보자 인원수가 비교적 적어 이와 같은 경향이 나타난 것은 화자의 개별성인지 연령대에 따라 일어난 발음 양상의 차이인지 논의하기 어렵다. 따라서 연령대에 따라 ‘ㄴㄹ’ 연쇄의 실현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10대, 20대, 30대, 40대 화자를 모두 제보자로 선택하기로 한다.

1)이다.²⁴⁾ 각 제보자의 구체적인 정보(출생지,²⁵⁾ 성장지와 나이)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²⁶⁾

제보자번호	출생지	성장지	나이
10.F1	경기	경기	17
10.F2	서울	서울	18
10.F3	경기	경기	15
10.F4	강원	경기	15
10.F5	경기	경기	17

제보자번호	출생지	성장지	나이
10.M1	서울	경기	14
10.M2	경기	경기	15
10.M3	서울	서울	15
10.M4	경기	경기	16
10.M5	서울	경기	15

제보자번호	출생지	성장지	나이
20.F1	서울	서울	25
20.F2	서울	서울	20
20.F3	부산	서울	23
20.F4	서울	서울	26
20.F5	서울	경기	26

제보자번호	출생지	성장지	나이
20.M1	서울	경기	27
20.M2	서울	경기	26
20.M3	서울	서울	26
20.M4	서울	서울	27
20.M5	서울	서울	28

제보자번호	출생지	성장지	나이
30.F1	서울	서울	38
30.F2	서울	서울	35
30.F3	경기	서울	38
30.F4	경기	경기	34
30.F5	서울	서울	34

제보자번호	출생지	성장지	나이
30.M1	서울	서울	39
30.M2	서울	서울	33
30.M3	서울	서울	33
30.M4	서울	서울	32
30.M5	경기	서울	32

제보자번호	출생지	성장지	나이
40.F1	서울	서울	42
40.F2	서울	서울	46
40.F3	서울	서울	45
40.F4	서울	서울	44
40.F5	서울	서울	43

제보자번호	출생지	성장지	나이
40.M1	서울	서울	41
40.M2	서울	서울	42
40.M3	서울	서울	47
40.M4	서울	서울	42
40.M5	서울	서울	41

<표 13> 각 제보자의 개인 정보

24) 10대 화자는 만 13세 이상인 화자를 위주로 선정하였다.

25) 출생지는 서울, 경기가 아니지만,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즉 7살 전에 거주지를 서울, 경기로 옮긴 경우도 서울, 경기 화자로 보기로 한다.

26) 제보자번호는 연령대, 성별, 번호의 순서로 표기하였다. F은 여성 화자를, M은 남성 화자를 의미한다.

2.3 조사방법

조사는 크게 발음실태 조사와 단어에 대한 화자의 친숙도 조사 두 가지가 이루어졌다.

발음실태 조사는 문장 읽기 방식을 택하였는데 제보자에게 문장을 보여주고 소리 내어 읽도록 하는 방식이다. 물론, 이러한 조사방법으로 해서 얻은 발화자료를 자연스러운 일상 발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단시간 안에 조사대상 단어의 발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조사대상이 포함된 문장 54개와 필러 문장 10개, 총 64개의 문장을 만들었으며, 그 일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²⁷⁾

- (3) ㄱ. 설날 연휴 동안 지방에 가는 사람들이 많다.
- ㄴ. 백화점에서 자켓류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
- ㄷ. 원피스의 안감이 겔레이스보다 살짝 짧다.
- ㄹ. 소영이는 평소에 라디오를 듣는 습관이 있다.
- ㅁ. 아기 용품 가게에 다양한 유아 덧신류가 있다.
- ㅂ. ‘김다라’의 이름에는 디글리올 두 자음이 들어 있다.
- ㅅ. 수빈이는 학교에서 꽃리스를 만들어 봤다.
- ㅇ.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로봇을 더 좋아한다.

밑줄을 그은 부분이 조사대상이며, 제시된 문장에는 밑줄을 표시하지 않았다. (3 ㄱ, ㄷ, ㅇ)은 필러 문장이다. 필러 문장을 넣은 이유는 제보자가 ‘ㄴㄹ’ 연쇄를 포함된 문장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느끼는 부담을 줄기 위해서이다.

조사는 만들어진 64개의 문장을 제보자에게 보여주고 전체 문장을 두 번씩 읽도록 요청하였다. 첫 번째 발화는 제보자로 하여금 주어진 문장을 익숙하게 하기 위한 연습으로 분석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이때는 제보자에게 평소 발화 속도대로 읽으라고 요구하였다. 제보자가 ‘ㄴㄹ’ 연쇄를 포함한 단어를 끊어서 발음하는 것도 허용

27) 모든 조사 문장은 부록에 첨부한다.

하였고 발화 실수가 발생한 경우도 허용하였다. 두 번째 발화는 가능한 한 문장을 유창하게 읽고 문장에 있는 단어를 되도록 끊어서 발음하지 않게 요청하였다. 그 이유는 제보자가 ‘ㄷㄹ’ 연쇄인 단어를 끊어서 발음하면 해당 단어의 최종 표면형의 실현 양상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두 번째 발화에서 제보자가 발화를 실수한 경우 전체 문장을 읽은 뒤 실수로 잘못 읽은 문장을 다시 읽게 하였다.²⁸⁾ 최종 발음형의 확인은 두 번째 발화와 두 번째 발화에서 실수로 인해 오독한 문장을 다시 한번 읽은 문장의 발화로 하였다.

발음조사는 조용한 환경에서 진행하였고 녹음은 마이크가 내장된 소니(sony)사 녹음기(PCM-A10)로 하였다. 녹음하기 전에 제보자에게 먼저 첫 번째 문장을 읽으라고 요청하고 마이크 테스트를 시행하였다. 녹음기와 제보자의 거리 및 제보자가 발화할 목소리 크기를 정하여 적당한 음량으로 녹음하였다.

녹음이 끝난 후에는 조사대상에 대한 제보자의 친숙도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친숙도를 조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조사를 통해 단어에 대한 화자의 친숙도가 ‘ㄷㄹ’ 연쇄 표면형 실현에 있어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임현렬(2011:49)에 따르면 ‘ㄷㄹ’ 연쇄에서 유음화를 선호하는 화자들이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에서는 유음화 선호의 정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만약에 ‘ㄷㄹ’ 연쇄에서 ‘ㄴㄹ’ 연쇄와 마찬가지로 모두 /ㄴㄴ/ 혹은 /ㄷㄷ/로 실현된다면 화자가 단어에 대한 친숙도가 ‘ㄷㄹ’의 발음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둘째, ‘ㄷㄹ’ 연쇄 단어나 구에서 후행하는 형태소 혹은 단어는 외래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ㄹ’로 시작하는 외래어도 모든 화자에게 친숙한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존재할 텐데, 친숙하지 않은 외래어라면 화자가 해당 외래어를 적힌 대로 발음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발음 양상 또한 차이가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아래와 같은 설문지를 만들어 제보자가 ‘ㄷㄹ’ 연쇄 단어 및 ‘ㄷㄹ’ 연쇄에서 후행하는 초성 ‘ㄹ’인 외래어에 대한 친숙도를 측정하여 이들이 ‘ㄷㄹ’ 연쇄 발음형의 실현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28) ‘ㄷㄹ’ 연쇄가 포함된 어형을 잘못 읽었을 때 제보자에게 다시 읽으라고 요구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방금 읽었던 문장에 나타난 단어 혹은 외래어를 평소에 어느 정도 접했는지를 알아보는 조사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해당 단어 혹은 외래어를 아주 많이 접하셨으면 ⑤, 들어본 적이나 접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면 ①로, 접하신 정도가 이 두 개의 기준의 사이에 있다면 ②부터 ④까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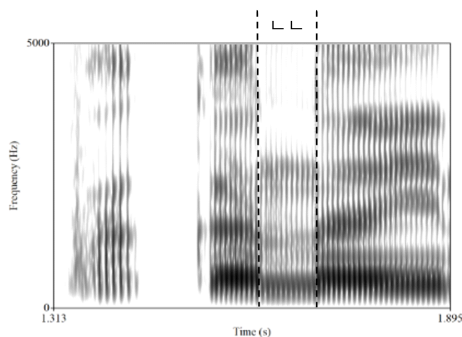
단어	접한 적이 아예 없음		보통		매우 자주 접함
꽃리스	①	②	③	④	⑤
팔라떼	①	②	③	④	⑤
옷리폼	①	②	③	④	⑤
꽃립스틱	①	②	③	④	⑤
(나머지 내용 생략)					
외래어	접한 적이 아예 없음		보통		매우 자주 접함
리스	①	②	③	④	⑤
라떼	①	②	③	④	⑤
리폼	①	②	③	④	⑤
립스틱	①	②	③	④	⑤
(나머지 내용 생략)					

<표 14> 단어 및 외래어 친숙도에 관한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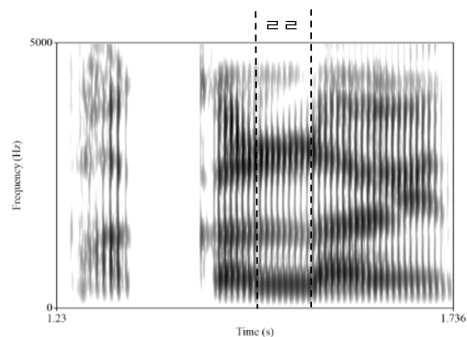
위에서 서술한 방법으로 조사한 다음에 각 제보자가 발음한 조사대상의 실현 양상을 판정하고 정리하였다.

조사를 통해 얻은 유효한 음성 자료는 총 2560개 (40명 제보자 × 64개 문장)이다. 이 중에 ‘ㄷㄹ’ 연쇄가 포함된 것은 1680개이고 ‘ㄴㄹ’ 연쇄가 포함된 것은 480개이며 나머지 400개의 음성 자료는 필러 문장이다.²⁹⁾ 본고에서 이들 음성 자료를 가지고 제보자가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판정하는 데 주로 음성분석 프로그램 Praat 6.0.49를 활용하였다. Praat에서 해당 단어가 나타나는 구간을 선택하여 반복적으로 듣고 또한 단어의 스펙트로그램을 참고로 보면서 해당 단어의 발음형을 판정하였다.

29) 한 문장 안에 ‘ㄷㄹ’ 연쇄를 포함한 단어가 두 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음성 자료는 제보자가 발화한 하나의 문장을 가리키고 단어의 음성 자료를 의미한 것이 아니다.



<그림1> 40.M5 ‘바깥라인’ /바깥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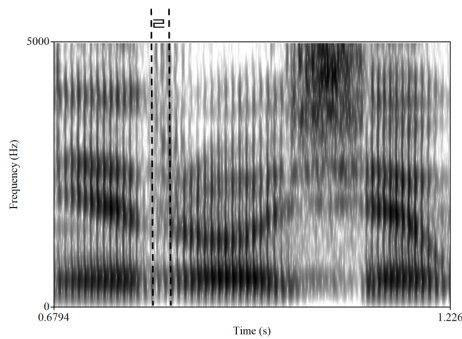


<그림2> 20.M1 ‘바깥라인’ /바깥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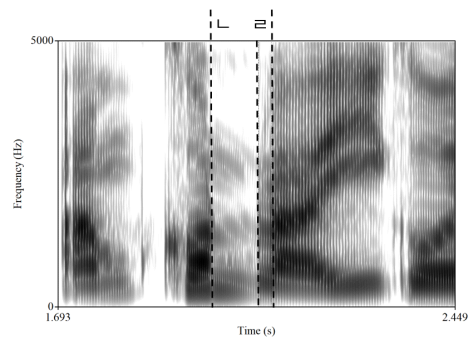
위 두 그림은 각각 40대 남성 화자(M5)와 20대 남성 화자(M1)가 발화한 단어 ‘바깥라인’의 스펙트로그램이다. 그림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은 ‘ㄴㄴ’ 연쇄가 각각 /ㄴㄴ/과 /ㄹㄹ/로 실현됨을 보여준다. 비음과 설측음이 조음될 때 모두 반공명 주파수가³⁰⁾ 수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반공명 주파수는 스펙트로그램에서 에너지가 약해지면서 명도가 낮고 흐리게 표시된다. 따라서 비음과 설측음의 구간은 모두 주변 모음보다 약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설측음은 비강 통로까지 막지 않기 때문에 비음에 비해 전반적인 에너지 감폭이 덜 일어난다(신지영 2014:249-252). 이와 같은 특징은 위 그림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바깥라인’은 /바깥나인/으로 발음될 때 중간에 에너지가 아주 약하게 나타나는 공간이 보이지만 /바깥라인/으로 발음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ㄴㄴ’ 연쇄의 표면형은 위와 같이 /ㄴㄴ/ 혹은 /ㄹㄹ/로 실현된 것이 대다수이지만 모든 제보자가 발음한 ‘ㄴㄴ’ 연쇄는 일률적으로 이 두 개의 형태로 나온 것이 아니다. /ㄴㄴ/ 혹은 /ㄹㄹ/ 이외의 형태로 실현된 경우도 있다. 가령 제보자 40.M2가 ‘옛 러시아’를 발음할 적에 ‘ㄴ’을 아예 탈락해서 발음하였다. 즉, ‘옛 러시아’를 /예러시아/로 발음한 것이다. 또한 30.F4 화자는 ‘암컷 라이거’를 /암권라이거/로 발음하였는데 이때의 ‘ㄹ’은 설측음이 아니라 권설 접근음에 더 가까운 소리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두 발음형의 구체적인 실현 양상은 아래 스펙트로그램에서 볼 수 있다.

30) 반공명 주파수는 에너지가 감폭되는 주파수 대역을 의미한다(신지영 2014:250).



<그림3> 40.M2 ‘옛 러시아’ /예러시아/



<그림4> 30.F4 ‘암컷 라이거’ /암컨라이거/

또한 구 구성에서는 ‘ㄷㄹ’ 연쇄를 끊어서 발음한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처럼 표면형 /ㄴㄴ/ 혹은 /ㄹㄹ/로 실현되지 않는 형태는 모두 ‘기타’로 분류하여 표시하였다.³¹⁾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보자에 따라 각 단어의 실현 양상을 확인한 뒤 분석의 편리를 위해 해당 단어의 발음형은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 Excel 2016에서 기록하였다. 기록할 때 정밀한 음성 전사 방식을 취하지 않고 발음형은 한글 자모로 간략하게 전사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또한 조사대상 사이 혹은 제보자 사이에 보이는 발음 양상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계자료 분석 소프트웨어 SPSS 25를 활용하였다.

31) ‘ㄷㄹ’ 연쇄 발음형에서 ‘기타’로 분류된 것은 총 37개이고 전체 발음 수의 2%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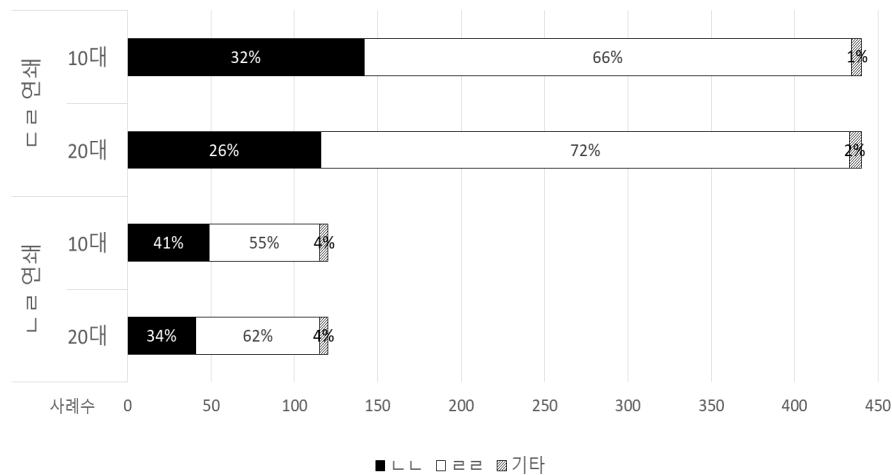
3. ‘ㄷㄹ’ 연쇄의 발음 양상

이 장에서는 크게 제보자의 연령대에 따라, 또 같은 연령대에서 조사대상 및 제보자에 따라 ‘ㄷㄹ’ 연쇄의 발음이 어떠한 양상을 드러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ㄷㄹ’ 연쇄의 표면형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ㄴㄹ’ 연쇄의 실현 양상도 여기서 함께 살펴본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ㄷㄹ’ 연쇄와 ‘ㄴㄹ’ 연쇄의 발음 양상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대와 20대 화자가 비슷하게 나왔고 30대와 40대 화자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여기서는 10대와 20대 화자의 발음 양상을 함께 제시하고, 30대와 40대 화자의 발화 양상을 함께 제시하면서 살펴보기로 한다.

3.1 10·20대 화자의 발음 양상

10·20대 화자들은 ‘ㄷㄹ’ 연쇄를 /ㄴㄴ/보다 /ㄷㄷ/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아래 막대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표 1> 10·20대 화자 ‘ㄷㄹ’, ‘ㄴㄹ’ 연쇄의 발음 양상

10대와 20대를 나누어 보면, 10대 화자가 ‘ㄷㄹ’ 연쇄를 /ㄴㄴ/과 /ㄹㄹ/로 발음한 비율은 각각 32%, 66%였다. 한편 ‘ㄴㄹ’ 연쇄를 /ㄴㄴ/으로 발음한 비율은 41%, /ㄹㄹ/로 발음한 비율은 55%였다. 10대 화자의 경우, ‘ㄷㄹ’과 ‘ㄴㄹ’의 두 가지 연쇄의 발음형에서 /ㄹㄹ/이 모두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20대 화자가 발음한 ‘ㄷㄹ’ 연쇄에서 /ㄴㄴ/은 26%, /ㄹㄹ/은 72%에 달했고, ‘ㄴㄹ’ 연쇄에서는 /ㄴㄴ/은 34%, /ㄹㄹ/은 62%에 달했다. 20대 화자도 10대 화자와 마찬가지로 ‘ㄷㄹ’ 연쇄와 ‘ㄴㄹ’ 연쇄의 발음형에서 /ㄴㄴ/보다 상대적으로 /ㄹㄹ/을 더 선호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ㄷㄹ’ 연쇄든 ‘ㄴㄹ’ 연쇄든 10·20대 화자의 발음에서는 /ㄹㄹ/이 더 많이 선택되었지만, 조사대상이나 개별 화자에 따라 실현 양상에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조사대상별과 화자별의 실현 양상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1.1 조사대상별 발음 양상

(1) ‘ㄷㄹ’ 연쇄 단어의 발음 양상

10·20대 화자들이 발음한 ‘ㄷㄹ’ 연쇄 단어의 토큰 수는 총 640개인데, 이 중에 /ㄴㄴ/은 31%(200개)를 차지하고 /ㄹㄹ/은 69%(439개)에 달하고 있다. 10·20대 화자 ‘ㄷㄹ’ 연쇄 단어의 발음에서는 /ㄹㄹ/이 훨씬 많이 실현되었다. 그러나 개별 단어에 따라 살펴보면, 어떤 단어는 /ㄴㄴ/으로 많이 발음되었고 어떤 단어는 /ㄹㄹ/로 더 많이 발음되었다. 각 단어의 발음양상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사대상	발음형					
	ㄴㄴ		ㄹㄹ		기타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리셋틀	18	90%	2	10%	0	0%
숫틀	16	80%	4	20%	0	0%
버섯류	15	75%	5	25%	0	0%
자켓류	13	65%	7	35%	0	0%

삼곶리	12	60%	8	40%	0	0%
초코릿류, 셋리스트	9	45%	11	55%	0	0%
엿류	8	40%	12	60%	0	0%
곶리스, 솟로스팅	7	35%	13	65%	0	0%
버섯라면	6	30%	13	65%	1	5%
티켓링크, 곶립스틱, 곶리치	6	30%	14	70%	0	0%
연회맛로, 벚곶로, 곶라인, 시곶리을, 곶리도	5	25%	15	75%	0	0%
디곶리을, 뒷라이닝, 바곶라인, 윗레벨, 곶레스트	4	20%	16	80%	0	0%
곶레이스, 곶리폼, 로봇랜드	3	15%	17	85%	0	0%
아곶라인, 벚곶라떼, 곶라떼, 아곶록	2	10%	18	90%	0	0%
아곶렛	0	0%	20	100%	0	0%

<표 15> 10·20대 화자 ‘ㄷㄷ’ 연쇄 단어 발음 양상

위 표를 통해 ‘리셋를’, ‘솟를’과 같은 ‘외래어+를’ 구성의 단어는 /ㄴㄴ/으로 발음한 비율이 각각 90%, 80%에 달하는데 조사된 단어 중에 /ㄴㄴ/의 실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곶류, 버섯류’ 등 ‘외래어 혹은 곶유어+류’ 구조를 가진 단어도 상대적으로 표면형 /ㄴㄴ/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이 두 단어가 /ㄴㄴ/으로 발음된 비율은 각기 75%와 65%로,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자어+한자어’로 만들어진 단어인 ‘삼곶리(三串里)’도 /ㄴㄴ/의 실현율이 절반 이상(60%)인 단어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아곶렛’은 모든 제보자가 /ㄷㄷ/로 발음하였다. 이 밖에 ‘아곶록’, ‘로봇랜드’ 등 외래어, ‘벚곶라떼’, ‘곶리폼’ 등과 같이 ‘곶유어+외래어’로 이루어진 혼종어도 절대다수의 제보자가 표면형 /ㄷㄷ/을 선택하였다. 또한 ‘디곶리을’, ‘시곶리을’과 같은 곶유어, ‘벚곶로’, ‘곶리도’ 등과 같은 한자어 형태소를 포함한 일부 단어의 발음형에서도 /ㄷㄷ/이 많이 보인다.

(2) ‘ㄷㄷ’ 연쇄 구 구성의 발음 양상

10·20대 화자가 발음한 ‘ㄷㄷ’ 연쇄 구 구성의 구체적인 실현 양상은 아래 표와 같다. ‘ㄷㄷ’ 연쇄 구 구성의 발음 양상은 ‘ㄷㄷ’ 연쇄 단어와 비슷하게 전체적으로 /ㄷㄷ/로 발음된 경우가 훨씬 많이 나왔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섯 량’을 제외한 나머지 구 구성의 발음형에서 /ㄷㄷ/이 50% 이상에 달했다. ‘여섯 량’은 구 구성의 발음에서 유일하게 /ㄷㄷ/보다 /ㄴㄴ/으로 더 많이 발음된 조사대상인데 /ㄴㄴ/이 75%로 아주 높게 실현되었다.

그러나 구 구성인 만큼 단어와는 달리 ‘ㄷ’과 ‘ㄷ’을 이어서 발음하지 않는 경우가 단어보다 더 많이 생기게 된다. 가령 ‘옛 러시아’는 여타의 조사대상과 다르게 10·20대 화자들이 끊어서 발음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어종	형태구조	조사대상	발음형					
			ㄴㄴ		ㄷㄷ		기타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고+외	관형사+명사	옛 러시아	1	5%	12	60%	7	35%
		첫 라운드	3	15%	16	80%	1	5%
	명사+명사	매운맛 라면	3	15%	17	85%	0	0%
		암컷 라이거	2	10%	18	90%	0	0%
	부사+동사	마음껏 리필하다	5	25%	25	75%	0	0%
		줄곧 리드하다	1	5%	19	95%	0	0%
	수관형사+명사	몇 리터	3	15%	17	85%	0	0%
		여섯 볼	7	35%	13	65%	0	0%
고+한	수관형사+의존명사	여섯 량	15	75%	5	25%	0	0%
		몇 리	6	30%	14	70%	0	0%
	한자음훈	그릇 린	4	20%	13	65%	3	15%
		이웃 린	8	40%	11	55%	1	5%

<표 16> 10·20대 화자 ‘ㄷㄷ’ 연쇄 구의 발음 양상

(3) ‘ㄴㄹ’ 연쇄의 발음 양상

10·20대 화자가 발음한 ‘ㄴㄹ’ 연쇄 단어는 ‘ㄷㄹ’ 연쇄 단어와 마찬가지로 어떤 단어는 /ㄹㄹ/로 많이 발음하고 어떤 단어는 /ㄴㄴ/으로 많이 발음하였다. 표면형에 /ㄹㄹ/이 상대적으로 많이 출현한 단어는 ‘온라인’, ‘당근라페’, ‘눈라인’ 등이 있고 /ㄴㄴ/이 더 많이 나타난 단어는 ‘치킨류’, ‘뎃신류’ 등이 있다. 그 이외에도 ‘ㄴㄹ’ 표기 그대로 발화한 경우(예: 니은리을)도 보였는데 단어별 구체적인 실현 양상은 아래와 같다.

조사대상	발음형					
	ㄴㄴ		ㄹㄹ		기타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치킨류	15	75%	5	25%	0	0%
뎃신류	14	70%	6	30%	0	0%
니은리을	11	55%	6	30%	3	15%
동안리	9	45%	11	55%	0	0%
스킨로션	7	35%	13	65%	0	0%
눈라인	4	20%	14	70%	2	10%
당근라페	4	20%	16	80%	0	0%
온라인	1	5%	19	95%	0	0%

<표 17> 10·20대 화자 ‘ㄴㄹ’ 연쇄 단어의 발음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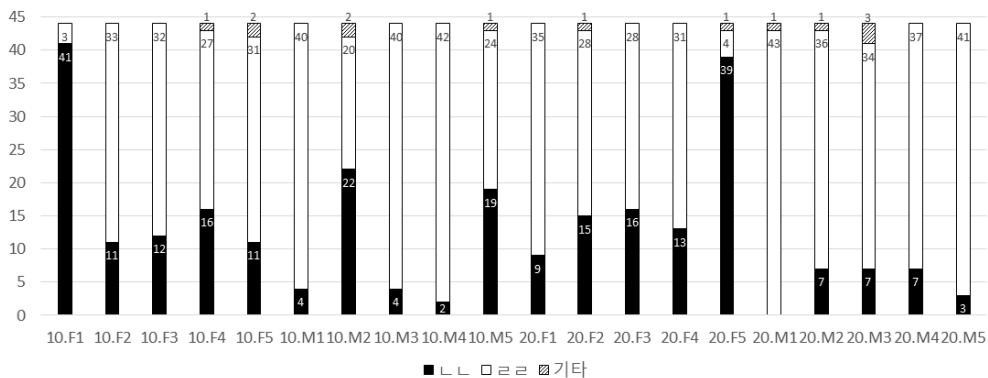
한편 ‘ㄴㄹ’ 연쇄 구 구성의 발음에서도 /ㄴㄴ/과 /ㄹㄹ/이 공존한다. 아래 <표 18>은 10·20대 화자가 발음한 ‘ㄴㄹ’ 연쇄 구 구성의 실현 양상인데 표를 통해 볼 수 있듯이 ‘한 라운드’에서 /ㄹㄹ/의 실현 비율은 85%로 나와 가장 높았다. ‘눈 레이저 수술’이나 ‘노끈 리’ 등 구 구성에서는 /ㄴㄴ/과 /ㄹㄹ/의 출현 비율은 비슷하다. 전체적으로 ‘ㄴㄹ’ 연쇄 구 구성의 발음형에서도 /ㄴㄴ/보다 /ㄹㄹ/이 더 많이 실현되었다.

조사대상	발음형					
	ㄴㄴ		ㄹㄹ		기타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눈 레이저 수술	9	45%	11	55%	0	0%
노끈 리	9	45%	10	50%	1	5%
당분간 리필	6	30%	12	60%	2	10%
한 라운드	1	5%	17	85%	2	10%

<표 18> 10·20대 화자 ‘ㄴㄹ’ 연쇄 구의 발음 양상

3.1.2 제보자별 발음 양상

10·20대 제보자들이 ‘ㄴㄹ’ 연쇄를 /ㄹㄹ/로 발음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위에서 제시한 조사대상별 발음 실현 양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모든 10·20대 제보자가 ‘ㄴㄹ’ 연쇄의 두 가지 표면형 가운데 /ㄹㄹ/을 선호한다는 것이 아니다. 조사된 10·20대 20명 제보자 중에 17명은 발음형 /ㄹㄹ/ 쪽으로 치우치는 양상이 드러났으나 나머지 3명의 제보자는 발음형에서 이와 같은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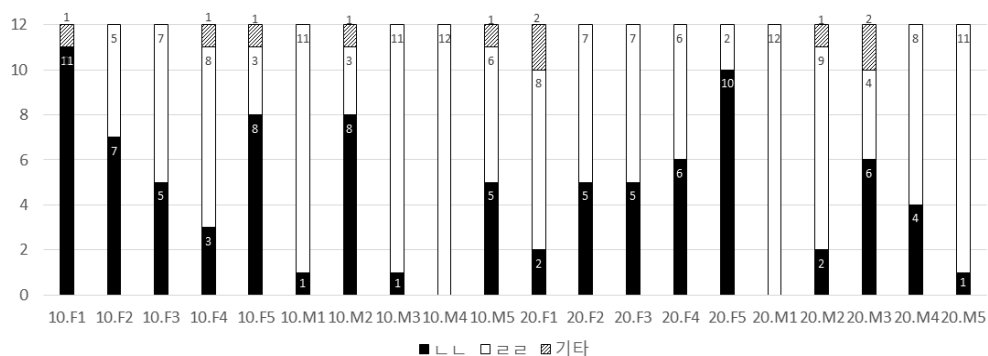


<도표 2> 10·20대 제보자별 ‘ㄴㄹ’ 연쇄의 발음 양상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화자 10.F1과 20.F5는 다른 제보자와 달리 표면형 /ㄴㄴ/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제보자 10.M2의 경우, /ㄴㄴ/(22개)과 /

ㄹㄹ/(20개)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실현되었다. 나머지 제보자들은 표면형을 /ㄹㄹ/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나, 화자마다 그 정도는 조금씩 다르다. 화자 20.M1는 모든 단어의 ‘ㄷㄹ’ 연쇄를 /ㄹㄹ/로 발음하였고 10.M1, 10.M4와 20.M5는 다른 화자보다 표면형 /ㄹㄹ/을 더 선호하는 것을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화자 10.F4, 10.M5, 20.F3은 ‘ㄷㄹ’ 연쇄를 /ㄹㄹ/로 발음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으나 /ㄴㄴ/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동일한 10대 혹은 20대 화자 집단에 속해 있더라도 화자마다 ‘ㄷㄹ’ 연쇄 발음형의 실현 양상이 다르다. 즉, ‘ㄷㄹ’ 연쇄 발음형 실현에 있어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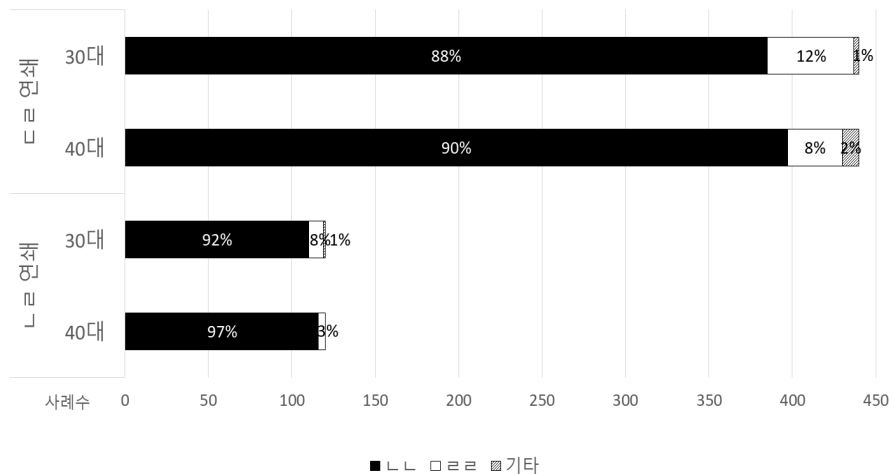
흥미로운 점은 ‘ㄷㄹ’ 연쇄에서 보이는 발음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ㄴㄹ’ 연쇄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가령 ‘ㄷㄹ’ 연쇄에서 /ㄴㄴ/를 선호하는 화자 10.F1과 20.F5는 ‘ㄴㄹ’ 연쇄에서도 똑같이 /ㄴㄴ/으로 발음한 경우가 많았고 ‘ㄷㄹ’ 연쇄에서 /ㄹㄹ/을 선호하는 10.M4, 20.M1 등 화자는 ‘ㄴㄹ’ 연쇄에서도 /ㄹㄹ/을 더 선호하였다. 그런데 10.F5 제보자는 ‘ㄷㄹ’ 연쇄는 /ㄹㄹ/로 더 많이 발음하였지만 ‘ㄴㄹ’ 연쇄는 /ㄴㄴ/으로 많이 발음하였다. 그러나 대체로는 10·20대 화자들이 ‘ㄷㄹ’ 연쇄와 ‘ㄴㄹ’ 연쇄의 발음형 /ㄴㄴ/과 /ㄹㄹ/에 대해 선호하는 경향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음의 <도표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표 3> 10·20대 제보자별 ‘ㄷㄹ’ 연쇄의 발음 양상

3.2 30·40대 화자의 발음 양상

30·40대 화자가 발음한 ‘ㄷㄹ’ 연쇄와 ‘ㄴㄹ’ 연쇄의 실현 양상은 10·20대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난다. 30·40대 화자는 ‘ㄷㄹ’ 연쇄나 ‘ㄴㄹ’ 연쇄를 /ㄴㄴ/으로 더 많이 발음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표 4> 30·40대 화자 ‘ㄷㄹ’, ‘ㄴㄹ’연쇄의 발음 양상

30대와 40대를 나누어 보면, 30대 화자는 ‘ㄷㄹ’ 연쇄를 88%를 /ㄴㄴ/으로 발음하였고 /ㄷㄷ/로 발음한 비율은 12%일 뿐이다. ‘ㄴㄹ’ 연쇄는 92%를 /ㄴㄴ/으로, 그리고 겨우 8%를 /ㄷㄷ/로 발음하였다. 30대 화자는 ‘ㄷㄹ’연쇄와 ‘ㄴㄹ’ 연쇄의 발음형에서 /ㄴㄴ/을 더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40대 화자는 ‘ㄷㄹ’ 연쇄 발음형에서 /ㄴㄴ/의 실현율은 90%를 차지했고 /ㄷㄷ/의 실현 비율은 8%이었다. ‘ㄴㄹ’ 연쇄 발음형에서는 /ㄴㄴ/은 97%로 아주 높게 나왔고 /ㄷㄷ/은 3%로 상당히 적게 실현되었다. 40대 화자도 30대 화자와 같이 ‘ㄷㄹ’ 연쇄 및 ‘ㄴㄹ’ 연쇄 두 가지 표현형 중에 /ㄷㄷ/보다 /ㄴㄴ/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10·20대 화자와 마찬가지로 개별 조사대상나 화자에 따라서는 발음형의 실현 양상에 차이가 있다.

3.2.1 조사대상별 발음 양상

(1) ‘ㄷㄷ’ 연쇄 단어의 발음 양상

30·40대 화자들이 ‘ㄷㄷ’ 연쇄 단어를 대부분 /ㄴㄴ/으로 발음하였고 개별적인 단어는 /ㄷㄷ/로 발음하였다. 단어별 구체적인 실현 양상은 아래 도표와 같다.

조사대상	발음형					
	ㄴㄴ		ㄷㄷ		기타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자켓류, 연희맛로, 꽃리스, 티켓링크, 삼꽃리, 버섯류, 핫라인, 숫물, 뒷라이닝, 꽃립스틱, 리셋물, 꽃리도, 셋리스트, 윗레벨, 굿리치	20	100%	0	0%	0	0%
걸레이스, 벚꽃로, 버섯라면, 벚꽃라떼, 팔라떼, 옷리폼, 옛류, 초콜릿류, 바깥라인, 로봇랜드	19	95%	1	5%	0	0%
아랫라인, 풋레스트	18	90%	2	10%	0	0%
아웃룩	16	80%	4	20%	0	0%
시옷리을	15	75%	5	25%	0	0%
디글리을	13	65%	7	35%	0	0%
아웃렛	1	5%	19	95%	0	0%

<표 19> 30·40대 화자 ‘ㄷㄷ’ 연쇄 단어의 발음 양상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30·40대 화자의 ‘ㄷㄷ’ 연쇄 단어의 발음형은 /ㄴㄴ/이 90% 이상 달하는 단어(28개)가 전체 조사 단어(32개)의 88%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ㄴㄴ/을 선호하는 경향과는 달리 ‘아웃렛’의 경우 거의 모든 30·40대 화자가 /아울렛/으로 발음하였다. ‘아웃렛’ 이외에 ‘디글리을’, ‘시옷리을’을 /디글리을/ 혹은 /시옷리을/로, ‘아웃룩’을 /아울룩/으로 발음한 경우가 존재하지만 ‘아웃렛’만큼 많지는 않았다. 나머지 /ㄷㄷ/로 발음된 단어가 몇몇 있지만, 이들은 뒤에서 화자별 발음 양상에서 다시 확인하겠으나, 대부분 한 화자의 발화에서 나타난 발음형이다.

(2) ‘ㄷㄷ’ 연쇄 구 구성의 발음 양상

30·40대 화자가 발음한 ‘ㄷㄷ’ 연쇄 구 구성의 실현 양상은 단어의 실현 양상과 유사하게 /ㄴㄴ/이 많은 편이다. 아래 표에 나타난 것처럼 ‘여섯 량’, ‘그릇 린’은 모든 화자가 /ㄴㄴ/으로 발음하였고 나머지 구에서는 /ㄴㄴ/과 /ㄷㄷ/이 선택적으로 실현되었다. 표면형이 선택적으로 나타난 구 구성에서 ‘암컷 라이거’, ‘줄곧 리드하다’, ‘마음껏 리필하다’ 등은 /ㄷㄷ/로 많이 발음되었다. 이처럼 30·40대 화자가 발음한 ‘ㄷㄷ’ 연쇄의 구 구성은 개별 조사대상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타난다.

어종	형태구조	조사대상	발음형					
			ㄴㄴ		ㄷㄷ		기타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고+외	관형사+명사	옛 러시아	15	75%	3	15%	2	10%
		첫 라운드	18	90%	1	5%	1	5%
	명사+명사	매운맛 라면	18	90%	2	10%	0	0%
		암컷 라이거	10	50%	8	40%	2	10%
	부사+동사	마음껏 리필하다	7	35%	8	40%	5	25%
		줄곧 리드하다	7	35%	10	50%	3	15%
	수관형사+명사	몇 리터	19	95%	1	5%	0	0%
		여섯 볼	19	95%	1	5%	0	0%
고+한	수관형사+의존명사	여섯 량	20	100%	0	0%	0	0%
		몇 리	19	95%	1	5%	0	0%
	한자음훈	그릇 린	20	100%	0	0%	0	0%
		이웃 린	19	95%	1	5%	0	0%

<표 20> 30·40대 화자 ‘ㄷㄷ’ 연쇄 구의 발음 양상

(3) ‘ㄴㄷ’ 연쇄의 발음 양상

‘ㄷㄷ’ 연쇄의 실현 양상과 비슷하게 ‘ㄴㄷ’ 연쇄도 30·40대 화자의 전체적인 발화에서 /ㄴㄴ/이 /ㄷㄷ/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ㄴㄷ’ 연쇄 단어에서 유독 ‘온라인’의

발음형에서 /ㄹㄹ/이 /ㄴㄴ/과 대등하게 출현하였다. 마찬가지로 ‘ㄴㄹ’ 연쇄 구 구성에서는 절대 다수의 발음형이 /ㄴㄴ/이고 ‘당분간 리필하다’에서 유일한 /ㄹㄹ/이 보인다. 30·40대 화자가 발음한 ‘ㄴㄹ’ 연쇄 조사대상별에 따른 구체적인 실현 양상은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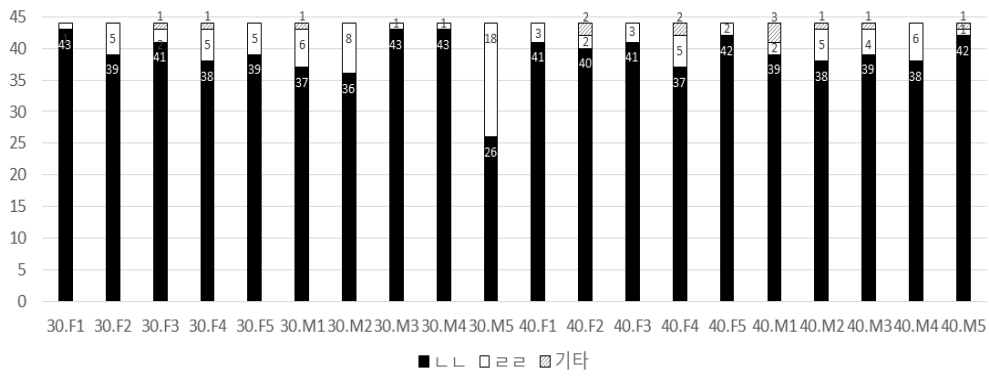
조사대상		발음형					
		ㄴㄴ		ㄹㄹ		기타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단어	덧신류, 치킨류, 니온리을, 스킨로션, 눈라인	20	100%	0	0%	0	0%
	당근라페, 동안리	19	95%	1	5%	0	0%
	온라인	10	50%	10	50%	0	0%
구	노끈 리, 한 라운드	20	100%	0	0%	0	0%
	눈 레이저 수술	19	95%	0	0%	1	5%
	당분간 리필	19	95%	1	5%	0	0%

<표 21> 30·40대 화자 ‘ㄴㄹ’ 연쇄 조사대상별 발음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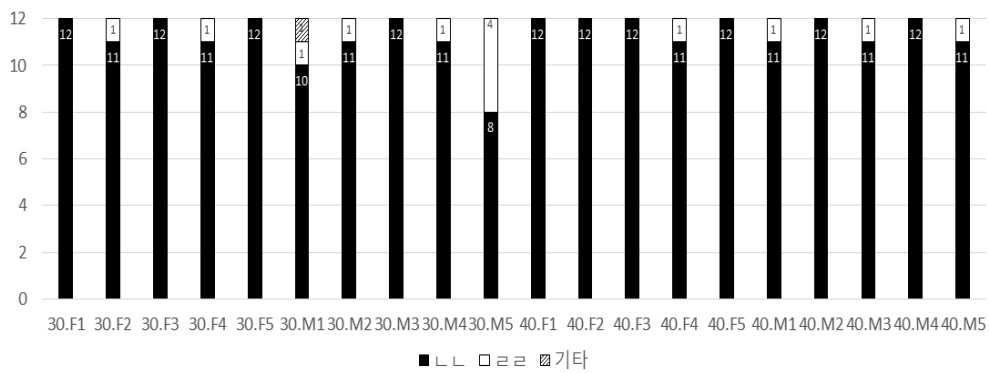
3.2.2 제보자별 발음 양상

비록 30·40대 화자의 전체적인 발음 양상은 ‘ㄷㄹ’ 연쇄이든 ‘ㄴㄹ’ 연쇄이든 모두 /ㄴㄴ/이 많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제보자의 발음형에서 /ㄴㄴ/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아니다. 30.M5 화자가 상대적으로 다른 제보자보다 /ㄹㄹ/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ㄷㄹ’ 연쇄 단어의 발음 양상에서 /ㄹㄹ/로 실현된 단어가 몇몇 존재하는데 이것은 바로 30.M5 화자의 발음형에서 나타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30.M5 화자가 ‘ㄷㄹ’ 연쇄에서 보이는 /ㄹㄹ/에 대해 선호하는 경향은 ‘ㄴㄹ’ 연쇄에서도 보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ㄹㄹ/이 ‘ㄷㄹ’ 연쇄 혹은 ‘ㄴㄹ’ 연쇄 전체 발음형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아주 유사하게 나왔다. 여타의 30·40대 화자의 발음 양상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또한 이 화자들의 발음형에서도 /ㄹㄹ/이 발견되었지만 아주 산발적으로 실현되어 30.M5와 구별된다. 30·40대 화자 개인마다 ‘ㄷㄹ’ 연쇄 및 ‘ㄴㄹ’ 연쇄 발음형의 실현 양상은 아래 두 개

그래프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도표 5> 30·40대 제보자별 ‘ㄴㄴ’ 연쇄의 발음 양상



<도표 6> 30·40대 제보자별 ‘ㄴㄴ’ 연쇄의 발음 양상

4. ‘ㄷㄹ’ 연쇄의 발음에 대한 해석

앞서 ‘ㄷㄹ’ 연쇄의 발음 양상을 확인하였다. 발음조사를 통해 ‘ㄷㄹ’ 연쇄가 포함된 어형이 거의 모두 두 가지 표면형으로 실현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ㄷㄹ’ 연쇄의 두 가지 표면형이 선택적으로 나타난 데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은 무엇인가. ‘ㄷㄹ’ 연쇄는 궁극적으로 /ㄴㄴ/ 혹은 /ㄹㄹ/로 발음되는데 ‘ㄷㄹ’ 연쇄에서 이러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동기가 무엇인가. 또한 이 현상에 대해 음운론적으로 어떻게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 분석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4.1 표면형 선택의 조건

‘ㄷㄹ’ 연쇄는 /ㄴㄴ/ 혹은 /ㄹㄹ/로 실현되는데 여기서는 이 두 가지 표면형이 어떠한 조건에서 선택적으로 실현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표면형 선택의 조건은 언어 내적인 조건과 언어 외적인 조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논의한다.³²⁾

4.1.1 언어 내적인 조건

언어 내적인 조건으로는 ‘ㄷㄹ’ 연쇄 단어에서 후행 단어 혹은 형태소의 어종, ‘ㄷㄹ’ 연쇄가 속하는 음운론적인 환경, 그리고 ‘ㄷㄹ’ 연쇄 단어의 음절수 및 음절내의 위치 등이 다루어졌다.³³⁾ 이 중에서 후행 요소의 어종 및 ‘ㄷㄹ’ 연쇄가 처하는 음운론적 환경은 표면형 선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단어의 음절수나 ‘ㄷㄹ’ 연쇄 음절내에 속하는 위치는 표면형 실현에 있어 결정적인 조건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3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30·40대 화자는 특정 단어(아웃렛, 디글리올, 시오티올)를 제외하면 거의 모두 다 /ㄴㄴ/으로 발음하였다. 즉, 30·40대 화자는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ㄷㄹ’ 연쇄 단어를 /ㄴㄴ/으로 발음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표면형 선택의 조건을 논의할 때 ‘연령’이라는 언어 외적인 조건을 제외하고, 주로 10·20대 화자가 발음한 것을 바탕으로 하였다.

33) 발음에 영향을 주는 언어 내적인 조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때 주로 조사된 ‘ㄷㄹ’ 연쇄 단어의 발음 양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 어종

‘ㄷㄹ’ 연쇄 단어의 발음 양상을 단어 구성 요소의 어종에 따라 살펴보면, ‘외래어+한자어’의 구성은 /ㄴㄴ/이 70%를 차지하여 /ㄷㄹ/보다 압도적으로 많다(<표 22> 참조). 한편 ‘외래어+한자어’ 이외의 경우에는 주로 /ㄷㄹ/로 실현되는데, ‘ㄷ’로 시작하는 요소가 외래어인지 한자어인지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난다. ‘ㄷㄹ’ 연쇄가 포함된 ‘고유어+외래어’, ‘고유어+ㄱ+외래어’, ‘외래어’에서는 /ㄷㄹ/의 실현 비율이 모두 78% 이상으로 나왔다. ‘한자어’, ‘고유어+한자어’에서는 /ㄷㄹ/이 각각 58%, 59%로 60%에 가까이 나타났지만, 후행 요소가 ‘ㄷ’로 시작하는 외래어인 단어의 실현율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단어 분류	어종		단어 수	발음형					
				ㄴㄴ		ㄷㄹ		기타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기타
합성어	①	고유어+외래어	9	40	22%	139	77%	1	1%
		고유어+ㄱ+외래어	3	10	17%	50	83%	0	0%
	②	외래어	8	35	22%	125	78%	0	0%
	③	고유어	2	9	23%	31	78%	0	0%
	④	한자어	2	17	43%	23	58%	0	0%
파생어	①	고유어+한자어	4	33	41%	47	59%	0	0%
	②	외래어+한자어	4	56	70%	24	30%	0	0%

<표 22> 구성 요소의 어종에 따른 ‘ㄷㄹ’ 연쇄 단어의 발음 양상(10·20대)

전체적으로 볼 때 후행 요소가 외래어일 경우에 ‘ㄷㄹ’ 연쇄 단어를 /ㄷㄹ/로 발음하는 비율은 79%이고, 후행 요소가 한자어일 경우에는 47%이다(<표 23> 참조). 즉, 후행 요소가 한자어일 때보다 외래어일 경우 발음형에서 /ㄷㄹ/의 실현율이 32%정도 높은 것이다. 반면 후행 요소가 한자어일 때 /ㄴㄴ/으로 실현된 비율은 53%인데 후행 요소가 외래어인 경우의 2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후행 요소의 어종과 발음형 사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다(카이제곱 검정 결과: $\chi^2=61.626$, $df=1$, $p<0.001$; Cramer's $v=0.321$).³⁴⁾ 따라서 ‘ㄷㄹ’

연쇄 단어의 발음형이 실현되는 데에는 단어에 포함되는 형태소 혹은 단어의 어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후행 요소 어종	단어 수	발음형			
		ㄴㄴ		ㄹㄹ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외래어	20	85	21%	314	79%
한자어	10	101	53%	94	47%

<표 23> 후행 요소의 어종에 따른 ‘ㄹㄹ’ 연쇄 단어의 발음 양상(10·20대)

‘ㄹㄹ’ 연쇄 단어뿐만 아니라 조사된 ‘ㄴㄹ’ 연쇄 단어도 마찬가지로 후행 요소가 외래어이면 /ㄹㄹ/로 많이 발음되고 후행 요소가 한자어이면 /ㄴㄴ/으로 더 많이 발음되는 양상을 보인다(<표 24> 참조). 이로써 10·20대 화자들이 ‘ㄴㄹ’ 연쇄든 ‘ㄹㄹ’ 연쇄든 후행하는 ‘ㄹ’은 외래어의 어두 초성이라면 두 연쇄를 /ㄹㄹ/로 발음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통해 10·20대 제보자들이 ‘ㄴㄹ’ 연쇄와 ‘ㄹㄹ’ 연쇄에서 후행하는 외래어를 그대로 발음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

후행 요소 어종	단어 수	발음형			
		ㄴㄴ		ㄹㄹ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외래어	4	16	21%	62	79%
한자어	3	38	63%	22	37%

<표 24> 후행 요소의 어종에 따른 ‘ㄴㄹ’ 연쇄 단어의 발음 양상(10·20대)

34) Cramer's V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모두 명목척도이지만 각 변수의 범주가 2개 이상인 경우에 두 변수간의 상관계수를 나타내는 지수이다(서정희·허은정 2013:164-165).

Cramer's V의 평가 기준(교차표에서 범주의 작은 값이 2인 경우)(이학식·임지훈 2009:179):

두변수간의 상관 크기		
작음	중간	큼
.10	.30	.50

(2) 음운론적 환경

10·20대 화자들의 ‘ㄷㄷ’ 연쇄 단어의 발음에서 후행 형태소가 똑같이 한자어임에도 불구하고, ‘ㄷ’ 뒤에 활음 ‘j’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단어의 발음 양상 또한 차이가 난다. 후행 한자어 형태소 초성 ‘ㄷ’이 뒤에 활음 ‘j’의 유무에 따른 단어 발음형의 전체적인 실현 양상은 <표 25>에서 확인할 수 있다.

‘ㄷ’ 뒤 ‘j’ 유무	단어 수	발음형			
		ㄴㄴ		ㄷㄷ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있음	6	79	66%	41	34%
없음	4	27	34%	53	66%

<표 25> 활음 ‘j’ 유무에 따른 ‘ㄷㄷ’ 연쇄 단어의 발음 양상(10·20대)

대체로 후행하는 형태소가 ‘ㄷ - j’로 시작하는 한자어인 경우 ‘ㄷㄷ’ 연쇄가 /ㄴㄴ/으로 실현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본고에서 조사된 ‘ㄷㄷ’ 연쇄 단어 가운데 이 조건에 부합하는 단어는 총 6개인데(리셋물, 숯물; 버섯류, 자켓류, 초콜릿류, 엿류), 이 6개 단어의 발음형에서 /ㄴㄴ/이 66%로 나타났다. 이 중 ‘리셋물, 숯물’의 발음형에서는 /ㄴㄴ/의 실현 비율이 각각 90%, 80% 정도로 아주 높게 나왔다. 이와 반대로 활음 ‘j’가 ‘ㄷ’ 뒤에 나타나지 않을 때는 발음형에서 /ㄷㄷ/이 더 많이 실현되었다. ‘ㄷㄷ’ 연쇄 단어 중 후행 한자어 ‘ㄷ’ 뒤에 ‘j’가 없는 단어는 총 4개이다(삼꽃리, 꽃리도, 연희맛로, 벚꽃로). 이들 단어의 발음형의 /ㄷㄷ/의 실현 비율은 66%에 달했다. ‘삼꽃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단어의 발음형에서는 /ㄷㄷ/의 비율이 75%를 차지했다. 이처럼 한자어 형태소 초성 ‘ㄷ’ 뒤 ‘j’ 존재 여부에 따라 ‘ㄷㄷ’ 연쇄 단어의 발음형이 다르게 실현되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카이제곱 검정 결과: $\chi^2=19.835$, $df=1$, $p<0.001$; Cramer's $v=0.315$). 따라서 상술한 바와 같이 ‘ㄷㄷ’ 연쇄 단어 발음형 실현에 ‘ㄷㄷ’ 연쇄가 속해 있는 음운론적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3) 음절수 및 ‘ㄷㄷ’ 연쇄 음절 내의 위치

‘ㄷㄷ’ 연쇄 단어의 음절수 그리고 ‘ㄷㄷ’ 연쇄가 음절 내에 속하는 위치는 발음 양상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표 26> 참조). 조사된 단어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고유어+외래어’에서 음절수와 ‘ㄷㄷ’ 연쇄의 위치에 따라 /ㄴㄴ/과 /ㄹㄹ/의 실현 비율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음절 단어와 4음절 단어의 발음형에서 /ㄴㄴ/과 /ㄹㄹ/의 실현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고, 같은 4음절 단어에서는 ‘1+3’ 음절 구성과 ‘2+2’ 음절 구성에서도 발음형이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외래어’에서는 ‘2+1’ 음절 구성을 제외하면 역시 /ㄴㄴ/과 /ㄹㄹ/이 비슷하게 나왔는데, ‘2+1’ 음절 구성에서 /ㄹㄹ/이 극히 높게 실현된 것은 ‘아웃렛’을 거의 모든 화자가 /아울렛/으로 발음하였기 때문이다. ‘한자어’에서는 ‘ㄷㄷ’ 연쇄가 음절 내의 위치에 따라 /ㄴㄴ/과 /ㄹㄹ/의 실현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지만, 조사된 ‘ㄷㄷ’ 연쇄를 포함한 한자어는 두 개밖에 없으므로 이와 같은 현상이 드러난 것은 단어의 개별성에 있을 수도 있어, ‘ㄷㄷ’ 연쇄 음절 내의 위치에 따라 발음 양상이 달라진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어종	음절수	음절내 위치	단어 수	발음형					
				/ㄴㄴ/		/ㄹㄹ/		기타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고+외	3	1+2	3	12	20%	48	80%	0	0%
	4	1+3	3	16	27%	44	73%	0	0%
	4	2+2	3	12	20%	47	78%	1	2%
고+ㅅ+외	3	1+2	1	4	20%	16	80%	0	0%
	4	1+3	1	4	20%	16	80%	0	0%
	4	2+2	1	2	10%	18	90%	0	0%
외	3	1+2	2	11	28%	29	73%	0	0%
	4	1+3	2	13	33%	27	68%	0	0%
	3	2+1	2	2	5%	38	95%	0	0%
	4	2+2	2	9	23%	31	78%	0	0%
한	3	1+2	1	5	25%	15	75%	0	0%
	3	2+1	1	12	60%	8	40%	0	0%

고+한	2	1+1	1	8	40%	12	60%	0	0%
	3	2+1	2	20	50%	20	50%	0	0%
	4	3+1	1	5	25%	15	75%	0	0%
외+한	2	1+1	1	16	80%	4	20%	0	0%
	3	2+1	2	31	78%	9	23%	0	0%
	4	3+1	1	9	45%	11	55%	0	0%

<표 26> ‘ㄷㄹ’ 연쇄 단어 음절수 및 음절내 위치에 따른 실현 양상(10·20 대)

4.1.2 언어 외적인 조건

언어 외적인 조건으로는 화자의 연령 및 성별, 화자의 ‘ㄷㄹ’ 연쇄 단어와 ‘ㄹ’로 시작하는 외래어에 대한 친숙도, 그리고 선행 연구에서 논의되었던 형태론적 구성에 대한 화자의 인식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들 중 화자의 연령만 ‘ㄷㄹ’ 연쇄 표면형 선택에 영향을 끼치고 나머지 요소는 표면형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 화자의 연령

비록 개인차가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20대 화자들은 ‘ㄷㄹ’ 연쇄를 /ㄷㄹ/로 더 많이 발음하고, 30·40대 화자들은 ‘ㄷㄹ’ 연쇄를 /ㄴㄴ/으로 많이 발음하였다(<표 27> 참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카이제곱 검정 결과: $\chi^2=664.44$, $df=3$, $p<0.001$; Cramer's $v=0.619$). 이로써 ‘ㄷㄹ’ 연쇄 표면형 선택에 있어 화자의 연령은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령대	제보자 수	발음형					
		ㄴㄴ		ㄷㄹ		기타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10대	10명	142	32%	292	66%	6	1%
20대	10명	116	26%	317	72%	7	2%
30대	10명	385	88%	52	12%	3	1%
40대	10명	397	90%	33	8%	10	2%

<표 27> 연령대에 따른 ‘ㄷㄹ’ 연쇄의 발음 양상

언어의 변화를 연령층으로 보면 대개 젊은 층이 주도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이익섭 2000:139). ‘ㄷㄷ’ 연쇄 발음형이 세대에 따라 다르게 실현된 것은 하나의 진행 중인 변화라고 해야 타당할 것이다. 이와 같은 진행 중인 변화 현상도 역시 상대적으로 젊은 10·20대 화자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³⁵⁾

‘ㄷㄷ’ 연쇄뿐만 아니라 ‘ㄴㄷ’ 연쇄의 발음형에서도 젊은 화자에 의해 일어난 변화 현상이 보인다고 한다. 이하영(2016)에서 부산 지역의 10대 화자와 그들의 부모 세대(40·50대)가 ‘ㄴㄷ’ 연쇄를 어떻게 발음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바가 있는데, 그 결과 10대 화자와 그들의 부모 세대에서는 확실한 세대 차가 있다고 밝혔다. 자녀 세대에서는 유음화, 즉 ‘ㄴㄷ’ 연쇄를 /ㄷㄷ/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부모 세대에서는 비음화하여 발음하는 경향(/ㄴㄴ/으로 발음하는 것)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강재연(2016:93), 임수록(2013:30-38)에서는 화자의 나이가 적을수록 ‘ㄴㄷ’ 연쇄를 /ㄴㄷ/과 같이 표기 그대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연령대에 따라 발음 양상이 달라진 것은 선행 연구에도 관찰되었고 본고에서는 화자의 연령이 표면형 실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2) 화자의 성별

10·20대 제보자 ‘ㄷㄷ’ 연쇄의 발음 양상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35) 10대, 20대 화자가 어떠한 이유로 30대, 40대 화자와 다르게 발음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대답하기 쉽지 않다. 표면형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 10·20대가 30·40대와 다른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외국어(특히 영어와 같은 서구 언어)의 학습과 외래어의 사용으로 인해 생긴 언어 인식과 언어 습관의 차이에 비롯되지 않을까 한다. 10대, 20대 화자들은 일찍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였고 또한 학교에서 외국어교육(주로 영어 교육)을 계속 받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20대 화자들이 외래어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하고 원어에 가까운 발음을 유지해서 발음하는 습관이 있을 수 있다. 앞절에서 살펴봤듯이 10·20대 화자들이 ‘ㄷㄷ’ 연쇄에서 후행하는 초성 ‘ㄷ’인 외래어를 그대로 발음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10·20대 화자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인식과 언어 습관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싶다. ‘ㄷㄷ’ 연쇄에서 후행 ‘ㄷ’로 시작하는 외래어를 제대로 발음하려고 하면 표면형 /ㄷㄷ/을 선택할 수 없고 그 결과 30·40대 화자보다 10·20대 화자의 발음형에서 /ㄷㄷ/이 더 많이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에 따라 발음형이 달리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만 논의를 그치고 더 구체적인 논의는 향후의 연구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성별	제보자 수	발음형					
		ㄴㄴ		ㄹㄹ		기타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남(M)	10명	75	17%	357	81%	8	2%
여(F)	10명	183	42%	252	57%	5	1%

<표 28> 10·20대 화자 성별에 따른 ‘ㄷㄷ’ 연쇄의 발음 양상

전체적으로 10·20대 제보자는 ‘ㄷㄷ’ 연쇄를 /ㄹㄹ/로 발음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남성 제보자가 여성 제보자보다 /ㄹㄹ/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남성 화자가 발음한 ‘ㄷㄷ’ 연쇄에서 표면형 /ㄹㄹ/의 실현 비율은 81%로 높게 나타났고, /ㄴㄴ/의 실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17%로 나타났다. 여성 화자의 ‘ㄷㄷ’ 연쇄 발음에서 /ㄹㄹ/이 57%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는 남성의 81%보다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러나 여성 화자의 발음에서 /ㄴㄴ/의 실현율은 42%에 달했는데 남성 화자의 17%보다 높게 실현되었다. 이와 같이 성별과 ‘ㄷㄷ’ 연쇄 발음형 사이에 서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ㄷㄷ’ 연쇄 발음형 실현에 있어 10·20대 화자 간 개인차가 현저히 존재한다. 10대 화자 중에 10.F1은 다른 제보자와 다르게 ‘ㄷㄷ’ 연쇄를 현저하게 /ㄴㄴ/으로 발음하는 경향을 보였고 반대로 10.M4는 ‘ㄷㄷ’ 연쇄를 거의 모두 /ㄹㄹ/로 발음하였다. 20대 화자에서도 20.F5는 유독 /ㄴㄴ/을 선호하고 20.M1의 발음에서 /ㄴㄴ/을 보이지 않았다. 이 화자들의 발음 때문에 여성 화자의 발음형에서 /ㄴㄴ/의 실현율이 남성보다 더 높고 /ㄹㄹ/이 더 낮게 실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성별과 발음형 사이에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여부를 확인할 때 발음형이 상대적으로 한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화자는 배제하였다. 이들 화자를 제외한 성별과 발음형 사이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 $\chi^2=6.511$, $df=1$, $p<0.05$; Cramer's $v=0.097$ 이다. 비록 통계 결과가 성별에 따라 ‘ㄷㄷ’ 연쇄 발음형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나왔지만, Cramer's v 값이 상당히 작으므로 성별과 발음형 간에 연관성이 아주 작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10대, 20대 화자 각 10명(남녀 화자 각 5명씩)을 제보자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는데,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기에는 화자의 인원수가 적은 편이다. ‘ㄷㄷ’ 연쇄 실현에 있어 성별이라는 조건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제보자 수를 늘려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3) 단어와 외래어에 대한 친숙도

‘ㄷㄷ’ 연쇄 단어에 대한 친숙도, 또는 ‘ㄷㄷ’ 연쇄에서 후행 ‘ㄷ’로 시작하는 외래어에 대한 친숙도는 ‘ㄷㄷ’ 연쇄 발음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아래와 같다.

먼저 단어에 대한 화자의 친숙도와 발음형 실현 양상의 관계를 보면, 단어에 대한 화자의 친숙도가 1인지(익숙하지 않음), 5인지(익숙함)는 ‘ㄷㄷ’ 연쇄 단어의 발음형을 결정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아래 표는 10대 화자의 단어 친숙도에 따른 ‘ㄷㄷ’ 연쇄 단어의 발음 양상인데, 더 친숙한 단어를 일정한 발음형으로 발음한다든지, 덜 친숙한 단어를 친숙한 단어와 달리 발음한다든지 하는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10.F1와 10.M3 화자 같은 경우 단어의 친숙도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단어를 각각 /ㄴㄴ/ 혹은 /ㄷㄷ/로 발음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20대 화자의 발화에서도 보인다. 따라서 본고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단어에 대한 화자의 친숙도가 ‘ㄷㄷ’ 연쇄 단어 발음형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³⁶⁾

제보자	발음형	단어에 대한 친숙도					제보자	발음형	단어에 대한 친숙도				
		1	2	3	4	5			1	2	3	4	5
		발음형 개수							발음형 개수				
10.F1	ㄴㄴ	8	3	5	2	11	10.M1	ㄴㄴ	0	1	0	0	3
	ㄷㄷ	1	0	0	0	0		ㄷㄷ	5	6	3	1	11
	기타	0	0	0	0	0		기타	0	0	0	0	0
10.F2	ㄴㄴ	2	1	3	2	2	10.M2	ㄴㄴ	9	0	2	4	0
	ㄷㄷ	1	2	2	7	8		ㄷㄷ	9	3	1	2	0
	기타	0	0	0	0	0		기타	0	0	0	0	0

36) 조사된 단어에 연령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ㄷㄷ/로 발음된 단어는 ‘아웃렛’이 있다. 이는 최진희(2010)의 논의에 따라 ‘아웃렛’은 실생활에서 표기가 이미 ‘아울렛’으로 굳어져 대부분 화자가 이 표기에 따라 발음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10.F3	ㄴㄴ	0	1	3	6	0	10.M3	ㄴㄴ	2	0	0	0	2
	ㄹㄹ	1	4	5	6	4		ㄹㄹ	11	3	2	1	9
	기타	0	0	0	0	0		기타	0	0	0	0	0
10.F4	ㄴㄴ	6	1	1	4	0	10.M4	ㄴㄴ	0	1	0	0	1
	ㄹㄹ	8	6	1	3	0		ㄹㄹ	1	2	4	6	15
	기타	0	0	0	0	0		기타	0	0	0	0	0
10.F5	ㄴㄴ	0	1	1	2	4	10.M5	ㄴㄴ	2	2	2	5	2
	ㄹㄹ	2	4	2	4	9		ㄹㄹ	3	2	5	6	1
	기타	0	0	1	0	0		기타	0	0	0	0	0

<표 29> 단어 친숙도에 따른 ‘ㄷㄹ’ 연쇄 단어의 발음 양상(10대 화자)

한편 화자에게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외래어이면 이를 그대로 발음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해보았다. 특히 10·20대 화자들이 표면형 /ㄴㄴ/과 /ㄹㄹ/을 선택적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보이는데 외래어의 친숙도가 그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것은 10대 화자의 외래어 친숙도에 따른 ‘ㄷㄹ’ 연쇄 단어의 발음 양상이다. 여기서는 외래어에 대한 친숙도와 발음형의 실현 사이에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는다. 가령 10.F1 화자는 외래어 친숙도와 상관없이 조사된 단어를 모두 /ㄴㄴ/으로 발음하였고, 반대로 10.F5, 10.M1, 10.M4 화자는 모두 /ㄹㄹ/로 발음하였다. 10.F4, 10.M2 화자의 발음형에서 /ㄴㄴ/과 /ㄹㄹ/이 상대적으로 골고루 나온 편이지만, /ㄴㄴ/과 /ㄹㄹ/의 실현이 외래어에 대한 친숙도와는 상관이 없는 듯하다. 20대 화자의 외래어 친숙도에 따른 발음 양상을 여기서 따로 제시하지는 않겠지만, 20대 화자의 경우 또한 10대 화자와 마찬가지로 외래어에 대한 친숙도는 ‘ㄷㄹ’ 연쇄 단어의 발음 양상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제보자	발음형	외래어에 대한 친숙도					제보자	발음형	외래어에 대한 친숙도				
		1	2	3	4	5			1	2	3	4	5
		발음형 개수							발음형 개수				
10.F1	ㄴㄴ	1	0	1	1	9	10.M1	ㄴㄴ	0	0	0	0	0
	ㄹㄹ	0	0	0	0	0		ㄹㄹ	1	0	0	1	10
	기타	0	0	0	0	0		기타	0	0	0	0	0

10.F2	ㄴㄴ	0	0	0	1	2	10.M2	ㄴㄴ	0	1	0	3	0
	ㄹㄹ	0	0	2	0	7		ㄹㄹ	0	1	1	6	0
	기타	0	0	0	0	0		기타	0	0	0	0	0
10.F3	ㄴㄴ	0	0	0	2	1	10.M3	ㄴㄴ	1	0	0	0	0
	ㄹㄹ	0	1	1	0	7		ㄹㄹ	2	0	0	0	9
	기타	0	0	0	0	0		기타	0	0	0	0	0
10.F4	ㄴㄴ	1	0	0	1	2	10.M4	ㄴㄴ	0	0	0	0	0
	ㄹㄹ	0	1	3	1	3		ㄹㄹ	1	1	0	0	10
	기타	0	0	0	0	0		기타	0	0	0	0	0
10.F5	ㄴㄴ	0	0	0	0	0	10.M5	ㄴㄴ	0	0	2	0	0
	ㄹㄹ	0	1	1	0	9		ㄹㄹ	1	1	2	2	5
	기타	0	0	0	0	1		기타	0	0	0	0	0

<표 30> 외래어 친숙도에 따른 ‘ㄷㄹ’ 연쇄 단어의 발음 양상(10대 화자)

(4) 형태론적 구성에 대한 인식

고성연(2002:87-92)에서는 ‘ㄷㄹ’ 연쇄가 두 가지 표면형이 선택적으로 실현되는 원인을 ‘형태론적 구성에 대한 화자 인식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다.³⁷⁾ 이 논의에 따르면 ‘ㄷㄹ’ 연쇄가 두 가지 표면형으로 나타나는 것은 화자의 단어경계에 대한 인식 유무에 따라 달라진 결과라고 한다. 예컨대, ‘디글리을’의 경우³⁸⁾ /디글리을/은 화자가 ‘디글리을’의 경계를 인식하지 않고 음운론적으로 투명한 표면형으로 발음한 것이고, /디글니을/은 ‘단어+단어’와 같은 형태론적 구성을 인식하면서 선행하는 단어를 충실하게 발음하려고 한 것이라고 하였다.³⁹⁾

37) 고성연(2002)에서 최적성이론을 중심으로 비음화와 유음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최적성 이론(optimality theory)이란 종래에 규칙을 중시하고 그 규칙순의 적용에 따른 도출 과정에 주목하던 관점을 바꿔, 제약에 의해 걸러지는 출력형에 관심을 두는 방법론이다(이기문 외 2000:206).

38) 논문에서 /디글니을/은 일종의 절충형이라고 보고 있다. 선행 음절 발음 ‘ㄷ’이 ‘ㄹ’로 변하면 원래의 ‘디글’은 표면형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나온 듯한 느낌을 받게 되어 ‘공명도 동화’를 부분적으로만 실현한 것이라 하였다.

39) 또한 이 논의에서 ‘ㄷㄹ’연쇄의 표면형인 /ㄴㄴ/과 /ㄹㄹ/의 선호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웃로비’와 같은 ‘고유어+외래어’로 구성된 혼종어는 그 구성상의 이유로 경계에 대한 인식이 확연하여 표면형 /ㄴㄴ/이 우세한 것이고, ‘티글리을’이나 ‘시웃리을’, ‘지웃리을’ 등은 표면형 /ㄹㄹ/보다 /ㄴㄴ/으로 발음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이 밖에 ‘꽃 리본’과 같은 구 구성에서 오로지 /ㄴㄴ/ 연쇄만 가능하고 /ㄹㄹ/은 허용되지 않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복합어의 경우는 화자에 따라 형태적 경계의 구분이 모호할 수도 있지만 구 구성은 모든 화자들에게

신지영(2016:309)에서도 ‘ㄷㄹ’ 연쇄가 두 가지로 실현되는 것을 형태론적인 조건으로 설명하였다. 이 논의에서 ‘웃로비’의 발음은 /온노비/와 /올로비/로 나타나는데, 둘 중에서 한국어 화자들이 가진 이 단어에 대한 지식을 잘 설명해 주는 발음형은 /온노비/라고 하였고, ‘웃+로비’의 구성을 가진 만큼 /온노비/가 더 올바른 언어 직관을 반영한 발음이라고 서술하였다.

그러나 본고의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10·20대 화자들은 ‘ㄷㄹ’ 연쇄를 단어이든 구 구성이든 모두 /ㄷㄹ/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고성연(2002), 신지영(2016)의 주장에 따르면 화자가 형태소 혹은 단어 경계를 인식하지 못해서 발음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10·20대 화자들이 구 구성임에도 /ㄷㄹ/로 많이 발음하는 것을, 10·20대 화자들이 구에 있는 구성 요소 간의 경계를 아예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가령 ‘줄곧 리드하다’와 같은 경우 화자가 이를 한 단어로 인식할 확률이 높지 않다. 단어와 단어 간의 경계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리드하다’를 제대로 발음하려고 하면 /줄곧리드하다/로 발음하게 된다.

요컨대 화자가 형태소 혹은 단어 경계를 인식하면 /ㄴㄴ/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ㄷㄹ/로 발음한다는 견해는 본고의 조사결과에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4.2 음운론적 · 음성학적 동기

발음조사를 통해 ‘ㄷㄹ’ 연쇄가 크게 /ㄴㄴ/과 /ㄷㄹ/로 발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기서는 ‘ㄷㄹ’ 연쇄에서 어떠한 음운론적 혹은 음성학적인 동기로 인해 이와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한국어에는 “음절 초성에 ‘ㄷ’이 오면 선행 음절 종성에 ‘ㄹ’ 이외의 자음이 올 수 없다.”와 같은 제약이 존재하고, ‘ㄷㄹ’ 연쇄는 이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어떤 식으로든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음절 배열 제약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즉, ‘ㄷㄹ’ 연쇄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 김차균(1981), 오정란(1995), 김태경(2005), 이진호(2005, 2014), 구현옥(2010) 등 논의에서는 선행 음

경계가 확연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절의 종성과 후행 음절 초성의 공명도(강도) 위계로 설명하였다.

이진호(2005:74, 2014:146)에 따르면 언어 보편적으로 볼 때 음절 초성에는 강자음(공명도가 낮은 자음)이 오는 것이 일반적이고 음절 종성에는 약자음(공명도가 높은 자음)이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한다. 또한 이와 같은 경향성은 음절과 음절이 연결될 때에도 확대되어 적용됨으로써 “선행 음절의 종성에 놓인 자음은 후행 음절의 초성에 놓인 자음보다 음운론적 강도가 더 크면 안 된다.”와 같은 음절 배열 제약이 생기게 된다고 하였다.

‘ㄷㄹ’ 연쇄는 역시 위와 같은 음절 배열 제약을 위반하고 있어 ‘ㄷ’과 ‘ㄹ’의 자음 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오정란(1995:153)에서 단어 ‘디글리울’의 표면형이 오직 /디글니울/만 있다고 주장하고 ‘ㄷㄹ’ 연쇄 자음 강도의 조정과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⁴⁰⁾

(4) ‘ㄷㄹ’ 연쇄 강조 조정과정 (예: 디글리울)⁴¹⁾

tikit liil
 5 > 2 ; Cf(s)<Ci(s)에 어긋남
 n l ← 강도낮추기
 3 > 2
 n n ← 강도높이기
 3 = 3
 [tikin niil]

40) 오정란(1995:143)에서는 한국어의 자음 강도는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활음	유음	비음	마찰음	무성폐쇄음	경음
-----	-----	-----	-----	-----	-----
1	2	3	4	5	6

41) ‘강도낮추기’는 음절 말음의 강도 낮추기를 가리킨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약에 음절말음이 음절두음보다 강도가 강하면서, 음절두음이 [공명성] 음운인 경우에는 강도낮추기를 적용하라. 강도낮추기는 후행음의 [공명성]자질의 공유로 이루어지며, 이때의 강도체계는 동격까지 허용된다.

‘강도높이기’는 음절 두음의 강도 높이기를 의미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약 음절두음이 음절말음에 비해 강도가 낮으면서 [설측성] 음운인 경우에는 음절두음의 강도높이기를 적용하라. 강도높이기는 [설측성]의 탈락으로 이루어진다.

공명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음절 배열 제약(Syllable Contact Law)은 한국어 뿐만 아니라 많은 언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음운 현상을 설명할 때 상당히 유용하다고 한다(Parker 2011:1170). 그러나 이를 음운 현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동기라고 할 수 있을까 한다. 음절 배열 제약을 위반하지 않는데도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예가 바로 ‘ㄷ’과 ‘ㄴ’이 연결될 때 나타나는 ‘순행적 유음화’이다. 즉, 선행 음절 종성에 있는 ‘ㄷ’은 후행 음절 초성에 오는 ‘ㄴ’보다 음운론적 강도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ㄷ’ 뒤에 오는 ‘ㄴ’은 ‘ㄷ’로 변한 것이다. 이와 비슷한 경우는 Leti, Toba Batak, Borrana Oromo, Akan 등 기타 언어에서도 찾을 수 있다(Seo 2011:1259, Parker 2011:1171).

이처럼 공명도 위계를 바탕으로 짜인 ‘음절 배열 제약’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음운 현상이 일어나는 동기로 볼 때 한계점이 존재한다. 김현(2011:139)에서도 ‘공명도 제약’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 논의에 따르면 공명도는 소리의 상대적 크기라는 속성상 분명한 음성학적 척도를 지니고 있지 못하며, 분절음 연쇄에 대한 공명도 제약은 귀납적 추론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음운 현상의 동기로 여기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ㄷㄴ’ 연쇄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은 선·후행하는 음절 종성과 초성이 공명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ㄷㄴ’ 연쇄 그 자체가 정상적으로 발음되기 어려운 음연쇄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한국어에서 파열음이 음절 종성에 위치하게 되면 더 이상 외파되지 않고 불파음으로 실현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따라서 ‘ㄷㄴ’ 연쇄에서 선행 음절 종성 ‘ㄷ’이 음성적으로는 불파음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 자음 체계에 존재하는 유일한 유음인 ‘ㄹ’은 분포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변이음으로 실현되는데 종성과 ‘ㄷ’ 뒤 초성에서는 설측음으로 실현되고, 그 이외의 초성에서는 탄설음으로 실현된다는 것이 ‘ㄹ’의 변이음 실현 양상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이다.

그렇다면 ‘ㄷㄴ’ 연쇄에서 불파음인 ‘ㄷ’ 뒤에 오는 ‘ㄹ’의 성격은 어떠한가. ‘ㄷㄴ’ 연쇄와 같은 파열음-유음 연쇄는 그 자체가 표면에 실현될 수 없는 자음 연쇄이다. 김현(2011:148)의 논의에 따르면 이처럼 실현을 확인할 수 없는 연쇄에서 기저의 ‘ㄹ’이 설측음인지 탄설음인지를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ㄹ’이 ‘ㄷ’에 후행하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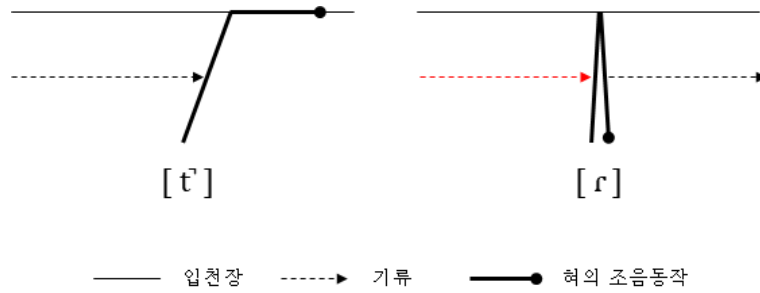
고 자음이나 휴지에 선행하지 않으므로 설측음이 아니라 탄설음으로 여긴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도 상술한 한국어 ‘ㄹ’의 변이음 분포 양상을 고려하여 이 견해에 따라 ‘ㄷㄹ’ 연쇄에서 후행 음절 초성 ‘ㄹ’은 탄설음으로 보고자 한다. ‘ㄷㄹ’ 연쇄는 음소적으로 파열음-유음의 연쇄이지만 음성적으로는 불파음-탄설음인 것으로 간주한다.

‘불파음-탄설음’은 정상적인 발화속도로 거의 발음 불가능한 연쇄이다. 그 원인은 불파음과 탄설음의 조음적인 특성에 찾을 수 있다. 탄설음은 많은 논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류가 구강이 열린 상태에서 흘러나가는 동안 아주 짧은 순간에 혀끝을 치조에 댔다가 떼는 식으로 발음된다. 혀끝과 치조의 접촉으로 인해 지속 흐르는 기류가 살짝 막혔다가 개방되는 특징을 가진다(조남민 2014:438, 김현 2011:148, La defoged & Johoson 2014(张维佳 외 역 2018:183)). 그러나 비록 탄설음이 발음될 때 기류가 구강에서 폐쇄되기는 하지만, 장애음만큼 폐쇄 지속 시간이 길지 않다. 탄설음이 조음될 때 조음체와 조음 위치가 접촉하는 시간이 아주 짧아 약 20ms밖에 안 된다고 한다(朱晓农 2010:168). 기류가 구강에서 산출되는 과정에 막힌다는 점에 탄설음이 어느 정도 파열음과 유사하지만, 방해를 받는 정도는 아주 약해 지속음과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다.

불파음은 조음체와 조음점이 접촉하는 순간 구강 폐쇄가 이루어진다. 구강 폐쇄가 형성되는 것은 구강에서 기류가 나오지 않고 차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파음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특징은 후행 탄설음이 가지고 있는 조음적인 특징과 상충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탄설음은 기류가 구강에서 흐르고 있을 때 조음 동작이 일어나고 발음되는 자음이다. 탄설음을 발음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 중의 하나는 바로 흐르는 기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음절 종성에 오는 불파음이 발음될 때 구강이 순간 닫히게 되는데 이로 인해 후행 탄설음을 조음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류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서승완 2019:83-84).

또한 설령 종성 불파음을 발음하다가 ‘ㄹ’을 발음하기 위해 닫혀 있는 구강을 재빨리 열어서 기류를 내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이와 동시에 혀가 입천장에 닿았다가 떨어지는 동작을 완성해야 한다는 점이 발음에 있어 화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그림 5> 참조). 따라서 일부러 의식하면서 발음하지 않는 이상, 이처럼 연속

적으로 순식간에 많은 조음 동작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발화에서 ‘ㄷㄹ’과 같은 불파음-탄설음의 연쇄는 거의 발음할 수 없고 조음 상 조절이 필요하여 음운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림 5> 불파음 ‘ㄷ’과 탄설음 ‘ㄹ’의 조음적인 특징

4.3 표면형 도출과정

발음될 수 없는 자음 연쇄가 생기면 어떤 방식으로든 조정되기 마련인데, 결과적으로 한국어에서 표면에 허용되지 않은 ‘ㄷㄹ’ 연쇄는 아래와 같이 크게 /ㄴㄴ/ 혹은 /ㄹㄹ/ 두 가지 발음이 가능한 형태로 변하게 된다. 그렇다면 한국어에서 ‘ㄷㄹ’ 연쇄 기저형에서 이 두 가지 표면형을 얻어내는 과정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기술해야 할 것인가.

기존 연구에서 ‘ㄷㄹ’ 연쇄 기저에서 표면형까지의 도출은 앞의 선행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간형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앞에서 서술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가져와 논의하고자 한다.

- (2) ㄱ. ㄷㄹ → ㄷㄴ → ① ㄴㄴ ② ㄴㄴ/ㄹㄹ
 ㄴ. ㄷㄹ → ㄴㄹ → ① ㄴㄴ ② ㄴㄴ/ㄹㄹ

‘ㄷㄹ’ 연쇄는 /ㄴㄴ/과 /ㄹㄹ/로 발음된다. 따라서 (2ㄱ).① 그리고 (2ㄴ).①와 같은 주장, 즉 ‘ㄷㄹ’ 연쇄의 표면형이 오직 /ㄴㄴ/ 하나밖에 없다는 견해가 이제는 정

확한 분석이라고 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ㄷㄹ’ 연쇄의 표면형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해석은 (2ㄱ).②와 (2ㄴ).②가 있는데, 이와 같은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 밖에 또 다른 설명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2ㄱ).②와 같은 주장은 ‘ㄷㄹ’ 연쇄의 표면형 /ㄴㄴ/이 나오는 과정은 (2ㄱ).①의 주장과 같다. 즉 ‘ㄷㄹ’ 연쇄 기저에 ‘ㄷ’의 비음화를 적용하고 난 뒤에 장애음의 비음화를 적용하는 것이다. 한편, /ㄷㄹ/이 출현한 것은 /ㄴㄴ/에 대해 반작용 혹은 유추라는 설명은 제2장에서 서술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명은 무리가 있지 않았나 싶다.

본고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0·20대 화자들의 ‘ㄷㄹ’ 연쇄 발음형에서 표면형 /ㄷㄹ/이 상당히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다. 10·20대 화자의 발음형에 /ㄷㄹ/이 많이 나타난 결과 모두 /ㄴㄴ/에 대한 반작용 혹은 유추로 설명하면 상당히 큰 부담을 가진다. 이진호(2008:205), 권순미(2007:39) 등 논의에서 ‘ㄴㄴ’ 연쇄를 /ㄷㄹ/로 발음한 경우(손녀/술려/)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예는 일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중부방언이 아닌 방언에서 나타난 경우가 많다. 본고에서 선정한 10·20대 제보자는 모두 서울, 경기 출신인 중부방언을 구사하는 화자인데, 그들이 모두 먼저 ‘ㄷㄹ’ 연쇄의 발음형이 /ㄴㄴ/인 것으로 생각한 뒤에 /ㄷㄹ/로 발음한 것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2ㄱ).②의 논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2ㄴ).②와 같은 주장이 상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즉, ‘ㄷㄹ’ 연쇄 기저에서 일차적으로 ‘공명음 앞 장애음의 비음화’의 적용을 받아 중간형 ‘ㄴㄷ’이 되었다가, 다시 ‘ㄷ’의 비음화 혹은 역행적 유음화의 규칙을 적용받아 표면형 /ㄴㄴ/이나 /ㄷㄹ/로 실현된 것이다. 그러나 신승용(2013:159)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명음인 ‘ㄷ’ 앞에 오는 장애음이 반드시 비음으로 변해야 하는 음성학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찾을 수 없다. 김차균(1998:85-86)에서 북한에서 나온 다음과 같은 북한어에 대한 문법 기술이 ‘ㄷ’ 앞에 장애음이 비음으로 변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서술한 바 있다. (5ㄷ)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와 같이 ‘ㅂ, ㅅ’은 뒤에 오는 소리가 ‘ㄷ’인데도 ‘ㅂ’이 ‘ㅁ’으로 ‘ㅅ’은 ‘ㅇ’으로 변하는 기술이 있다는 것이다.

(5) ㄱ. 향명성 자음⁴²⁾ 앞에서 ‘ㄱ’, ‘ㄷ’, ‘ㄴ’은 각각 /ㅇ/, /ㄴ/, /ㄹ/으로 변한다.

ㄴ. 생산력/생산력/, /*생산녁/, /*생살력/

신리/신리/, /*신니/, /*실리/

ㄷ. 법령/법령/, /*법녕/

속력/송력/, /*송녁/

그러나 실제 발음이 문법 기술과 거리가 있는 경우가 없지 않다. 북한에서 실제로 이처럼 발음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강진철 외(1996:108)는 북한어에서 받침 ‘ㄱ, ㄴ’이 뒤에 오는 ‘ㄷ’에 의하여 ‘ㅇ, ㄹ’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경우에 뒤에 온 ‘ㄷ’이 그대로 발음되는지 아니면 ‘ㄴ’으로 발음되는지에 대해 살핀 적이 있다. 여기서는 ‘법령’은 정상적으로 /법녕/으로 발음되었다고 주장하여 ‘ㄴㄷ’ 연쇄를 가지는 단어 ‘법랑, 법률, 합류, 답례’는 각각 /법낭/, /법눌/, /함뉴/, /답네/로 발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논의에서는 실제 녹음한 자료를 가지고 북한어 장애음과 ‘ㄷ’ 연쇄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보다 실제 발음 양상에 가까운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참고하면 북한어에 대한 문법 기술이 실제 발음 양상을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를 장애음이 ‘ㄷ’ 앞에 오면 비음으로 나타난다는 증거로 보면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다.

이 밖에 비록 본고의 발음조사에서는 많이 관찰되지 않았지만, ‘ㄷㄷ’ 연쇄를 /ㄴㄷ/로도 많이 발음한 것은 선행 연구 검토에서 이미 확인하였다.⁴³⁾ 이를 ‘ㄷㄷ’ 연쇄의 중간형이 ‘ㄴㄷ’이 되어야 한다는 증거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ㄴㄷ/이 나오는 것은 /ㄴㄴ/으로 발음하려고 계획하다가 뒤 음절의 초성인 ‘ㄷ’이 의식하면서 발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팔라떼’를 보고 /판나떼/로 발음하려고 했으나 ‘팔’을 /판/으로 발음한 뒤에 초성 ‘ㄷ’을 인식하면서 결과적으로 /판라떼/로 발음한다. 특히, 대부분의 발음조사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화자가 지면에 있는 단어 혹은 문장을 보고 읽는 방식인데, 그렇기에

42) 향명성 자음은 공명 자음과 같은 개념이다.

43) 이와 같은 조사결과에 차이가 나타난 것은 조사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본다.

화자가 더욱 표기에 의식할 수밖에 없다.⁴⁴⁾ 자연발화에서 ‘ㄷㄹ’ 연쇄가 /ㄴㄹ/로 많이 발음되는지에 대해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만약에 화자가 ‘ㄷㄹ’ 연쇄를 /ㄹㄹ/로 발음하려고 한다면, 중간에 ‘ㄷ’을 ‘ㄴ’으로 발음하지 않고 처음부터 ‘ㄹ’로 발음할 것이다. 따라서 표면형에 보이는 /ㄴㄹ/은 /ㄹㄹ/로 발음하려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고 보인다. 그러므로 /ㄹㄹ/이 나오는 것 또한 표면형 /ㄴㄹ/과 상관없는 것으로 본다. ‘ㄷㄹ’ 연쇄에서 표면형 /ㄹㄹ/이 도출되는 과정이 반드시 중간형인 ‘ㄴㄹ’을 거쳐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기존 논의에서 제시한 ‘ㄷㄹ’ 연쇄 기저에서 표면형까지 도출되는 방법은 모두 조금씩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ㄷㄹ’ 연쇄 도출과정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타당한 것인가.

앞의 ‘ㄷㄹ’ 연쇄와 ‘ㄴㄹ’ 연쇄에 대한 발음 조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ㄷㄹ’ 연쇄는 거의 ‘ㄴㄹ’ 연쇄와 같게 행동한다. 다시 말해, 한 화자나 한 세대의 발음형에서 ‘ㄷㄹ’ 연쇄와 ‘ㄴㄹ’ 연쇄가 비슷하게 실현된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ㄷㄹ’ 연쇄와 ‘ㄴㄹ’ 연쇄가 어떤 면에서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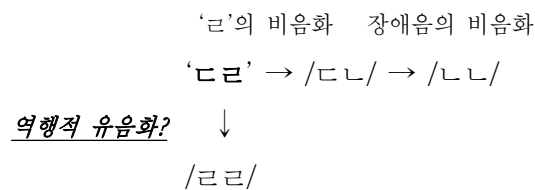
4.2에서 논의하였듯이 본고에서는 ‘ㄷㄹ’ 연쇄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음성학적인 동기는 ‘ㄷ’이 음절 종성에 불과음으로 실현되어 후행 ‘ㄹ’을 발음할 때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데에 있다고 보고 있다. 비음 ‘ㄴ’은 음절 종성에 위치할 때 역시 구강 폐쇄가 형성된다. 하지만 ‘ㄴ’이 발음될 때에는 비강 통로에서 기류를 내보내기 때문에 구강과 비강에서 모두 기류를 막는 장애음인 ‘ㄷ’과 완전히 같다고 할 수 없다. 서승완(2019:84)에서 밝혔듯이 비음과 ‘ㄹ’의 연쇄를 발음할 때에는 구강의 폐쇄 지점의 개방과 동시에 구강 내에 기류가 생성되므로 비음 뒤에 탄설음의 조음이 불편하지만 불과 장애음 뒤만큼 탄설음이 기피된다고 할 수 없다.⁴⁵⁾ 어찌

44) Jongho Jun(2000:193-206)의 논의에서 ‘ㄱㄹ’연쇄를 /ㅇㄹ/으로 발음한 경우에도(예: 대학로/대항로/) 있다고 밝히면서 공식적으로 ‘장애음+ㄹ’연쇄에서 ‘ㄹ’의 비음화가 더 이상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ㅇㄹ/으로 발음한 것도 역시 /ㅇㄴ/으로 발음하려고 계획하다가 /ㄹ/을 의식하면서 발음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ㅇㄹ/형이 반드시 ‘ㄱㄹ’ 연쇄 도출과정의 중간형으로 볼 필요가 없다.

45) 강제연(2016), 조다영(2018) 등 논의에서 요즘 젊은 화자들이(10대, 20대 화자) ‘ㄴㄹ, ㄹㄹ, ㅇㄹ’과 같은 ‘비음-유음’ 연쇄를 표기 그대로 발음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한다.

되든 간에 ‘ㄷㄹ’ 연쇄에서든 ‘ㄴㄹ’ 연쇄에서든 발음될 때 모두 구강에서 기류 폐쇄가 먼저 형성되므로 후행 ‘ㄹ’이 발음되기 어려워서 음운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곧 ‘ㄷㄹ’ 연쇄와 ‘ㄴㄹ’ 연쇄에서 음운 변동이 나타나는 데에 있어 같은 음성학적인 동기를 가진다는 것을 말한다.

기존의 논의에 따르면 ‘ㄴㄹ’ 연쇄에는 ‘ㄹ’의 비음화 혹은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되어 두 개의 표면형이 얻어지게 되는데, ‘ㄴㄹ’ 연쇄와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동기가 같고 표면형 실현 양상도 같은 ‘ㄷㄹ’ 연쇄는 ‘ㄴㄹ’ 연쇄와 같은 규칙의 적용으로 표면형 도출과정을 설명할 수 없는가(<그림 6> 참조).



<그림 6> ‘ㄷㄹ’ 연쇄의 도출과정

‘ㄷㄹ’ 연쇄에 ‘ㄴㄹ’ 연쇄와 같은 음운 규칙을 적용한다고 하면, 먼저 후행 자음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ㄹ’의 비음화를 적용한 것이 있다. 그러나 ‘ㄴㄹ’ 연쇄와 달리 ‘ㄷㄹ’ 연쇄에서는 ‘ㄹ’의 비음화가 적용된 다음에 다시 한 번 비음 앞 장애음의 비음화를 겪어야 한다. 이는 기존에 있는 (27).①의 주장과 일치한다. 즉, ‘ㄷㄹ’ 연쇄에서 ‘ㄹ’의 비음화가 적용한 다음에 비음 앞 장애음 비음화가 다시 적용되어 /ㄴㄴ/이 도출되는 것이다.

‘ㄴㄹ’ 연쇄에서는 역행적 유음화도 적용될 수 있는데 ‘ㄷㄹ’ 연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된다. 그것은 바로 ‘ㄷㄹ’ 연쇄는 ‘역행적 유음화’의 적용환경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존연구는 한국어에서 ‘ㄹ’ 앞에 치조 비음인 ‘ㄴ’이 올 때 선행하는 ‘ㄴ’이 ‘ㄹ’으로 변하는 ‘역행적 유음화’라는 규칙에 대해 많이 언급해 왔는데, ‘역행적 유음화’의 적용환경은 단지 ‘ㄴㄹ’ 연쇄에만 국한되고 있다.

(6) ㄴ → ㄹ / _____ ㄹ (역행적 유음화 ①)

그러나 ‘ㄹ’과 같은 조음 위치에 속해 있는 치조 장애음인 ‘ㄷ’도 ‘ㄹ’ 앞에서 바로 ‘ㄹ’로 실현될 수 있다.⁴⁶⁾ 이는 곧 ‘ㄷㄹ’ 연쇄에서도 ‘ㄴㄹ’ 연쇄와 같이 역행적 유음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ㄷㄹ’ 연쇄가 /ㄹㄹ/로 된 것은 공시적으로 일종의 ‘역행적 유음화’의 적용환경이 확대로 설명할 수 없는가.

(7) ㄴ → ㄹ / _____ ㄹ (역행적 유음화 ①)

ㄷ → ㄹ / _____ ㄹ (역행적 유음화 ②)

‘ㄴㄹ’ 연쇄든 ‘ㄷㄹ’ 연쇄든 ‘ㄹ’을 유지해서 발음하려면 ‘ㄴ’ 혹은 ‘ㄷ’을 ‘ㄹ’로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 치조음인 ‘ㄴ’과 ‘ㄷ’은 다른 조음 위치에 속해 있는 비음이나 장애음과 달리 ‘ㄹ’과 같은 조음 위치에 있다. 따라서 이 두 자음이 ‘ㄹ’ 앞에 오면 조음 방법만 바뀌어서 모두 동일 조음 위치인 ‘ㄹ’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ㄷㄹ’ 연쇄에서 ‘ㄷ’이 ‘ㄹ’로 되는 것과 ‘ㄴㄹ’ 연쇄에서 ‘ㄴ’이 ‘ㄹ’로 되는 것은 모두 ‘역행적 유음화’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공시적으로 역행적 유음화의 적용환경은 ‘ㄴㄹ’ 연쇄일 뿐만 아니라 ‘ㄷㄹ’ 연쇄까지 확대된 것으로 여긴다.

(8) 역행적 유음화 (본고의 주장)

ㄷ, ㄴ → ㄹ / _____ ㄹ

기존 연구에서 ‘ㄷ’이 ‘ㄹ’로 된 현상이 역행적 유음화로 본 논의가 없지 않다. Cho(2016:12-13)에서 한국어 조음 방법 동화 현상에 대해 논의하면서 ‘디글리올’은 /디글리올/로 발음한 것은 “‘ㄷ’-유음화(/t/-lateralization)”로 보았다. 또한 ‘ㄷ’-유음

46) 비록 음운환경이 다르지만, 음소 ‘ㄷ’은 ‘ㄹ’로 변하는 현상은 그다지 드문 현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유창돈(1959:26-32)에서 ‘ㄷ’이 ‘ㄹ’로 변하는 몇 가지 경우에 대해 정리하고 분석한 바가 있다. 여기서 서술한 내용은 크게 (1) ㄷ變格: 걷어>걸어(步); (2) ㄹ變格用言: 단다>단으다>다드다>다르다(異); (3) 語尾: 補助語幹/디/나 어미 /도/, /다/ 등이 各其 /러, 로, 라/로 轉成하는 것; (4) 意義部 內部: 모단>모란(牡丹); (5) 漢字의 終聲: 한자음에서 입성 ‘ㄷ’이 모두 ‘ㄹ’로 변한 것.

화는 ‘ㄴ’-유음화와 비교할 때 방향성에 있어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ㄴ’-유음화는 ‘ㄴㄹ’ 연쇄와 ‘ㄹㄴ’ 연쇄에서 모두 일어날 수 있는 양방향(bidirectional)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ㄷ’-유음화는 오로지 ‘ㄷㄹ’ 연쇄에서만 일어나고 ‘ㄹㄷ’ 연쇄에서는 나타나지 않다고 하였다. 즉, ‘ㄷ’-유음화는 역행적인 환경일 때에만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의에서 ‘ㄷㄹ’ 연쇄의 예로 든 단어는 ‘디글리울’ 하나인 뿐이고 이의 발음형이 오로지 /디글리울/ 하나만 인정하며 또한 이를 가지고 음운론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한다.

‘ㄷㄹ’ 연쇄에서 보이는 ‘ㄷ’이 ‘ㄹ’로 변하는 현상은 일종의 역행적 유음화 적용환경의 확대로 보는 것은 본고에서 주장한 바이다. 그렇다면 역행적 유음화의 적용환경이 왜 ‘ㄷㄹ’ 연쇄까지 확대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본고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공식적으로 ‘ㄴㄹ’ 연쇄에서 역행적 유음화가 젊은 층 화자의 발화에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에 있다고 본다.⁴⁷⁾ 국립국어원(2012:276)의 조사결과를 보면 10대 화자들이 ‘ㄴㄹ’ 연쇄가 포함된 단어를 다른 연령대 화자(20, 30대, 40, 50대, 60대 이상)보다 표면형 /ㄹㄹ/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⁴⁸⁾ 또한 국립국어원(2016:141-144)에 따르면 10·20대 화자들이 ‘ㄴㄹ’ 연쇄의 표준 발음이 /ㄴㄴ/인 단어를 /ㄹㄹ/로 발음한 비율은 30대~60대 화자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였다.⁴⁹⁾ 그만큼 오늘날 10·20대 젊은 화자들이 중장년 화자보다 ‘ㄴㄹ’ 연쇄에서 역

47) 공식적으로 역행적 유음화의 생산성이 높지 않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동석(2005)에서 역행적 유음화 규칙은 현재 시점에서 거의 소멸된 규칙이고 공식적으로는 ‘ㄹ’의 비음화 규칙만 생산성이 있는 규칙이라고 하였다. 또한 권순미(2007)에서 경북방언에서 역행적 유음화 규칙이 공식적인 규칙이 아니고 ‘ㄹ’의 비음화 규칙이 공식적으로 활발하게 실현되는 규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에 나온 발음 조사 보고서나(국립국어원 2012, 2016) 논문에서 제시한 조사결과(이하영 2016, 고도연·엄홍준 2017)를 통해 역행적 유음화가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역행적 유음화 규칙의 생산성이 낮다고 하거나 소멸하였다고 말할 수 없다고 본다.

48) 국립국어원(2012)에서 ‘ㄴㄹ’연쇄가 화자의 연령대별로 실현되는 양상에 대해서 논의할 때 20대와 30대 화자, 40대와 50대 화자의 발음 양상을 묶어서 서술하였다. 따라서 20대에서 50대 화자까지 각 연령대 화자의 발음 양상에서 /ㄹㄹ/의 실현 비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49) ‘상견례’를 /상결례/로 발음한 10대, 20대 화자의 비율은 각각 42.9%, 28.4%이고, 30대부터 60대까지는 각각 15.8%, 8.4%, 8.4%, 6.7%이다.
‘공권력’을 /공궐력/으로 발음한 10대, 20대 화자의 비율은 각각 27.3%, 20.2%이고 30대부터 60대까지는 각각 11.1%, 10.7%, 12.7%, 16.9%이다.

행적 유음화를 더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ㄴㄹ’ 연쇄에서 보이는 10·20대 화자들이 이러한 발음 경향이 ‘ㄷㄹ’ 연쇄까지 적용되고 ‘ㄷㄹ’ 연쇄에서도 역행적 유음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둘째, 앞에서 살펴봤듯이 10·20대 화자들이 ‘ㄴㄹ’ 연쇄와 ‘ㄷㄹ’ 연쇄에서 모두 후행 요소는 ‘ㄹ’로 시작하는 외래어일 때 /ㄷㄹ/로 발음한 경우가 더 많았다. 이는 곧 10·20대 화자들이 외래어를 제대로 발음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ㄷㄹ’ 연쇄에서 초성인 ‘ㄹ’을 그대로 발음하려고 하면 선행 음절 종성 ‘ㄷ’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역행적 유음화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ㄷㄹ’ 연쇄 단어나 구 구성에서 후행 요소는 ‘ㄹ’로 시작하는 외래어인 경우가 절대다수인데 이러한 특징은 마침 상술한 10·20대 화자가 외래어를 그대로 발음하려는 습관과 맞아떨어진다. 이는 역행적 유음화가 ‘ㄷㄹ’ 연쇄까지 확대 적용하는 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요컨대 10·20대 화자들의 발음습관 및 ‘ㄷㄹ’ 연쇄 단어나 구의 특성은 모두 역행적 유음화의 적용환경이 ‘ㄷㄹ’ 연쇄까지 확대되는 요인으로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ㄷㄹ’ 연쇄는 ‘ㄴㄹ’ 연쇄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음운 규칙인 ‘ㄹ’의 비음화 혹은 역행적 유음화를 적용하여 도출될 수 있다고 본다. ‘ㄹ’의 비음화 규칙은 ‘ㄹ’이 ‘ㄹ’을 제외한 자음 뒤에 올 때 ‘ㄴ’으로 변하는 것이고, 역행적 유음화는 치조음 ‘ㄷ’과 ‘ㄴ’이 ‘ㄹ’ 앞에 나타날 때 ‘ㄹ’로 변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⁵⁰⁾ 이 두 가지 음운 규칙의 공시적인 기술은 아래와 같다.

50) 서보월(1995:6)에서 [+grave](ㄱ, ㅇ, ㅋ, ㆁ 등)일 때에 ‘ㄹ’이 ‘ㄴ’으로 실현되고 [-grave](ㄴ, ㄷ, ㄹ 등)일 경우에는 ‘ㄹ’이 유지되어 /ㄷㄹ/로 되는 가설이 제안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이 가설을 부정하였다.

- ㄱ. ‘ㄷㄹ’ 연쇄에서(몇 리) ‘ㄷ’이 뒤에 오는 ‘ㄹ’은 ‘ㄴ’으로 변하고 ‘ㄹ’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
- ㄴ. 일반적으로 [+grave]인 말자음 뒤에서만 ‘ㄹ’이 ‘ㄴ’으로 되는 현상이 일어날 필연적인 동기(음성적/비음성적인 동기)가 없다는 점.
- ㄷ. ‘ㄴㄹ’ 연쇄는 특수한 연쇄로 한국어의 다른 연쇄 제약에 지배된다는 점.

하지만 조사를 통해 이미 확인하였듯이 ‘ㄷㄹ’ 연쇄에서 ‘ㄷ’이 ‘ㄹ’로 실현된다. 따라서 ㄱ.은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점 ㄴ.에 대하여 본고에서는 반드시 [+grave]인 종성 뒤에서만 ‘ㄹ’이 ‘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ㄹ’이 제외한 모든 자음 뒤에서 ‘ㄹ’이 ‘ㄴ’으로 될 수 있다고 본다. 단지, 선행 음절 종성에 [-grave]인 자음의 뒤에 ‘ㄹ’이 오면 이들 자음이(‘ㄹ’ 제외) ‘ㄹ’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9) ㄱ. ‘ㄱ’의 비음화

ㄱ → ㄴ / ㄱ 이외 자음 _____

ㄴ. 역행적 유음화

ㄷ, ㄴ → ㄱ / _____ ㄱ

또한 이 두 가지 음운 규칙이 공시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으며 ‘ㄴㄱ’ 혹은 ‘ㄷㄱ’ 연쇄에서 어떠한 음운 규칙이 적용되는지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5. 결론

지금까지 ‘ㄷㄹ’ 연쇄의 발음을 조사하여 발음 양상을 제시하였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ㄷㄹ’ 연쇄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논의하였다. 결론 부분에서는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정리하고 본고의 부족한 점과 향후 보완해야 할 점을 설명하는 것으로써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ㄷㄹ’ 연쇄 표면형 실현 양상에 대한 발음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고, 또한 ‘ㄷㄹ’ 연쇄의 표면형이 연구자 본인의 직관에 의하여 판단되어 음운론적인 분석까지 달라진 경우가 많았다. 본고는 이와 같은 기존 연구에서 보이는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다양한 ‘ㄷㄹ’ 연쇄 어형의 발음 양상을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ㄷㄹ’ 연쇄에 대한 실증적이고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본고에서 ‘ㄷㄹ’ 연쇄에 대해 살피고자 한 문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① ‘ㄷㄹ’ 연쇄가 포함된 어형이 모두 표면형 /ㄷㄹ/ 혹은 /ㄹㄹ/로 선택적으로 실현되는가.
- ② 만약 두 가지 표면형이 선택적으로 실현된다면, 표면형의 선택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무엇인가.
- ③ ‘ㄷㄹ’ 연쇄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음운론적·음성학적 동기는 무엇인가.
- ④ ‘ㄷㄹ’ 연쇄의 기저형에서 표면형들이 도출되는 과정에 대한 타당한 기술은 무엇인가.

결과적으로 볼 때 ‘ㄷㄹ’ 연쇄가 포함된 어형들이 모두 /ㄷㄹ/ 혹은 /ㄹㄹ/ 두 가지 표면형으로 발음되었다. 또한 여러 조건에 따라 표면형이 실현되는 경향이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 살핀 결과, 표면형 선택에 영향을 주는 조건 중에, 언어 외적인 조건으로는 화자의 연령이 있고, 언어 내적인 조건으로는 어종 및 음운론적 환경이 있다.

비록 개별 조사대상이나 제보자에 따라 ‘ㄷㄹ’ 연쇄의 실현 양상이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20대 화자가 30·40대 화자보다 ‘ㄷㄹ’ 연쇄를 /ㄹㄹ/로 발음하

는 경향이 아주 높았다. 10·20대 화자가 발음한 ‘ㄷㄷ’ 연쇄에서 /ㄷㄷ/이 69%를 차지했고, /ㄴㄴ/은 29%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30·40대 화자는 ‘ㄷㄷ’ 연쇄 발음형에서 /ㄷㄷ/은 10%로 적게 나왔고, /ㄴㄴ/이 89%로 높게 실현되었다.

또한 10·20대 화자들이 발음한 ‘ㄷㄷ’ 연쇄 단어의 발음형에서, 후행 요소가 한자어보다 외래어일 때 /ㄷㄷ/이 더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후행 형태소가 한자어일 경우, 초성 ‘ㄷ’ 뒤에 활음 ‘j’가 있을 때 /ㄴㄴ/으로 더 많이 발음되고, 활음 ‘j’가 없을 때 상대적으로 /ㄷㄷ/로 많이 발음된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화자의 연령, 후행 요소의 어종 및 ‘ㄷㄷ’ 연쇄가 속하는 음운론적 환경은 표면형 선택의 조건이라고 보았다. 이 밖에 ‘ㄷㄷ’ 연쇄의 음절수 및 음절내의 위치나 단어에 대한 화자의 친숙도 그리고 형태론적 경계에 대한 화자의 인식 등 기타 조건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이들이 발음형의 실현과 필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ㄷㄷ’ 연쇄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동기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ㄷㄷ’ 연쇄가 음소적으로는 ‘과열음-유음’의 연쇄이지만, 음성적으로는 ‘불과음-탄설음’의 연쇄라고 보고 있다. 탄설음을 발음할 때 선행하는 기류가 있어야 하는데, 앞에 오는 불과음이 발음될 때 기류가 막히게 되므로 결국은 탄설음의 ‘ㄷ’이 발음되지 못한다. 이에 따라 ‘ㄷㄷ’ 연쇄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발음될 수 없는 ‘ㄷㄷ’ 연쇄는 최종적으로 /ㄷㄷ/ 혹은 /ㄴㄴ/으로, 발음이 가능한 자음 연쇄로 변하는데, 본고에서는 ‘ㄷㄷ’ 연쇄에서 /ㄴㄴ/과 /ㄷㄷ/이 도출되는 과정에 대한 타당한 기술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ㄷㄷ’ 연쇄가 /ㄴㄴ/으로 도출되는 것은 일차적으로 ‘ㄷ’의 비음화가 적용되어 중간형인 ‘ㄷㄴ’을 거쳤다가 다시 장애음의 비음화가 적용된 것으로 보았고, ‘ㄷㄷ’ 연쇄가 /ㄷㄷ/로 도출되는 것은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된 결과로 보았다. 기존 논의에 따르면 역행적 유음화가 ‘ㄴㄷ’ 연쇄에서 적용될 수 있지만, ‘ㄷㄷ’ 연쇄는 역행적 유음화의 적용환경이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고는 ‘ㄷㄷ’ 연쇄에서도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현재로서 역행적 유음화의 적용환경이 ‘ㄷㄷ’ 연쇄까지 확대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역행적 유음화가 ‘ㄷㄷ’ 연쇄까지 확대 적용된 이유는 첫째, 최근에 10·20대 화자의 발화에서 역행적 유음화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경향성이 ‘ㄷㄷ’ 연쇄까지 적용되어 역행적 유음화도 자연스럽게 ‘ㄷㄷ’ 연쇄까지 확

대된 것이다. 둘째, 10·20대 화자들은 외래어를 그대로 발음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ㄷㄹ’ 연쇄 어형에서 마침 후행하는 초성 ‘ㄹ’인 단어가 외래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후행하는 외래어를 그대로 발음하려면 선행 ‘ㄷ’을 ‘ㄹ’로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처럼 ‘ㄷㄹ’ 연쇄 어형의 특성이 젊은 층 화자의 발음 습관과 맞아떨어진 것도 역행적 유음화가 ‘ㄷㄹ’ 연쇄까지 확대 적용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으로 본고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본고는 현대 한국어 ‘ㄷㄹ’ 연쇄의 발음 양상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역시 부족함이 많이 존재한다. ‘ㄷㄹ’ 연쇄 발음을 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이들의 발음은 중부방언을 사용하는 모든 화자의 발음을 대표할 수 없다. 또한 제보자에게 문장을 읽히는 방법으로 조사하였는데 이렇게 수집해 온 음성 자료는 자연발화로 보기 어렵다. 향후 더 많은 제보자를 대상으로 자연발화 상태에서 ‘ㄷㄹ’ 연쇄의 발음 양상을 확인하여 분석한다면 더 좋은 연구성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강재연(2016), 현대 국어 /ㄴ/과 /ㄹ/ 연쇄의 발음실태 조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진철·김성근·김수길(1996), 《조선어 실험음성학》(영인본), 한국문화사
- 고도연·엄홍준(2017), 음의 동화에 대한 실제 발음의 양적 연구, 《어문논집》 69, 중앙어문학회, 7-28.
- 고성연(2002), 국어의 비음화와 유음화 현상에 대한 연구: 최적성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현옥(2010), 《국어 음운학의 이해》, 한국문화사
- 국립국어연구원(2001), 외래어 발음실태 조사,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연구원(2002), 표준 발음실태 조사,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원(2012), 표준 발음법 영향 평가,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16),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 국립국어원.
- 권순미(2007), 현대국어 ㄴ-ㄹ 연쇄의 변이 현상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아(2004), 유음화와 비음화의 선택적 교체에 대하여, 《인문논총》 12,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5-37.
- 김선철(2006), 《중양어의 음운론적 변이양상》, 경진문화사
- 김성규·정승철(2005), 《소리와 발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김종덕(2017), 외래어와 외국어, 그리고 국어, 《새국어생활》 27-1, 국립국어연구원, 67-89.
- 김차균(1985), 《음운론의 원리》, 창학사.
- 김차균(1998), 《음운학강의》, 태학사
- 김태경(2005), 《국어의 음운 제약과 음운변동 현상》, 한국학술정보.
- 김 현(2011), 공명도 및 관련 음운 현상에 대한 음성학적 접근, 《어문연구》 39-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39-164.
- 배주채(2013), 《한국어의 발음》, 삼경문화사.
- 변용우(2018), 자음 연쇄에서의 제약의 성립과 해소, 《동악어문학》 76, 동악어문학회, 35-90.

- 서보월(1995), 국어의 유음화와 비음화에 대하여, 《어문론총》 29, 경북어문학회, 115-143.
- 서승환(2019), ㄹ의 분포 제약에 관하여, 《어문연구》 47, 한국어문교육연구회, 75-99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5), 《서울대 한국어 4B》, 투판즈
- 서정희·허은정(2013), 《SPSS 21.0을 활용한 생활과학 통계분석》, 울산대학교출판부
- 송철의(1998), 외래어의 순화방언과 수용대책, 《새국어생활》 8-2, 국립국어연구원, 21-40.
- 신승용(2011), 문법 교육에서 구(句)와 어(語)의 문제, 《국어교육연구》 49, 국어교육학회, 153-178.
- 신승용(2013), 《국어 음운론》, 역락.
- 신지영(2014), 《말소리의 이해》, 한국문화사.
- 신지영(2016), 《한국어의 말소리》, 박이정.
- 신지영·차재은(2003), 《말소리의 체계》, 한국문화사.
- 심민수(2010), 한국어와 영어차용어의 비음화 및 유음화 연구, 《현대영미어문학》 28-1, 현대영미어문학회, 215-235.
- 양순임(2012), 《말소리》, 월인.
- 오정란(1995), 비음화와 비음동화, 《국어학》 25, 국어학회, 137-164.
- 유창돈(1959), 「ㄷ, ㄹ」 음운변화의 관련성, 《인문과학》 3,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7-44
- 이기문·김진우·이상억(2000), 《국어음운론》, 학연사
- 이동석(2005), 형태소 내부의 순행 비음화 현상에 대하여, 《언어학연구》 9, 한국중원언어학회, 117-138.
- 이문규(2015), 《국어 교육을 위한 현대 국어 음운론》, 한국문화사.
- 이상혁(2002), 외래어의 개념 및 유형 설정: 서구 외래어를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15, 돈암어문학회, 101-123.
- 이세창(2006), 설정성 자음의 비음화와 설측음화에 관한 연구, 《음성·음운·형태론 연구》 12-3, 한국음운론학회, 643-659.
- 이익섭(2000), 《사회언어학》, 민음사
- 이진호(1998), 국어 유음화에 대한 종합적 고찰, 《국어학》 31, 국어학회, 81-120.

- 이진호(2005), 국어의 음운론적 제약 체계, 《어문연구》 33-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59-82.
- 이진호(2006), 국어 음운론의 중간 층위, 《어문연구》 34-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93-111.
- 이진호(2008), ‘독립(獨立)’류 한자어의 음운론, 《한국문화》 44,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216.
- 이진호(2012), 《한국어의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 아카넷
- 이진호(2014), 《국어 음운론 강의》, 삼경문화사.
- 이진호(2017), 《국어 음운론 용어 사전》, 역락.
- 이하영(2016), 부산지역 세대 간 발음 변이에 대한 연구: /ㄴ-ㄷ/ 연쇄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학식·임지훈(2009), 《SPSS 16.0 매뉴얼》, 법문사
- 임수록(2013), /ㄴ+ㄷ/과 /ㄷ+ㄴ/ 연접형 발음 실태 연구: 창원지역 화자를 대상으로,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현렬(2011), /ㄴ ㄷ/ 연쇄의 자유변이현상에 대한 인지적 접근, 《어문론집》 47, 중앙어문학회, 33-53.
- 장소원·김혜영(2016), 구의 개념 정립과 그 분류, 《국어학》 80, 국어학회, 173-194.
- 조남민(2014), 한국어 어두 유음의 변이음에 관한 연구, 《언어과학연구》 70, 언어과학회, 433-460.
- 조남민(2015), 어두 유음의 음성적 실현에 관한 연구, 《언어과학연구》 75, 언어과학회, 289-310.
- 조다영(2018), /ㄱ/-/ㄷ/, /ㅇ/-/ㄷ/ 연쇄 발음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진희(2010), 비음화와 유음화의 발음 실태와 지도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 웅(1983), 《국어학 - 우리말의 오늘·어제 -》, 샘문화사
- Cho, Y-m. Y.(2016), Korean phonetics and phonology, *Oxford Research Encyclopedia of Linguistics*, 1-47.
- Davis, S. & Shin, S-H(1999), The syllable contact constraint in Korean: an optimality-theoretic analysis,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8-4, Springer Netherlands, 285-312.
- Jun, J.(2000), Preliquid nasalization, 《언어》 25-2, 한국언어학회, 191-208.

- Ladefoged, P. & Johnson, K.(2014), *A Course in Phonetics (7th Edition)*, Wadsworth Publishing (张维佳·田飞洋 译(2018), 《语音学教程 (第七版)》, 北京大学出版社)
- Parker, S.(2011), Sonority, *The Blackwell Companion to Phonology Volume II*, Wiley-Blackwell, 1160-1184
- Seo, M.(2011), Syllable Contact, *The Blackwell Companion to Phonology Volume II*, Wiley-Blackwell, 1245-1262.
- Sohn, H-S.(2008), Phonological contrast and coda saliency of sonorant assimilation in Korean,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17, Springer Netherlands
- 朱晓农(2010), 《语音学》, 商务印书馆

부록

발음조사에서 사용한 문장

(‘ _____ ’ 로 표시된 것은 ‘ㄷㄹ’ 연쇄 어형이고, ‘ _____ ’ 로 표시된 것은 ‘ㄴㄹ’ 연쇄 어형임.)

1. 설날 연휴 동안 지방에 가는 사람들이 많다.
2. 백화점에서 자켓류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
3. 원피스의 안감이 겔레이스보다 살짝 짧다.
4. 소영이는 평소에 라디오를 듣는 습관이 있다.
5. 사람의 눈을 그릴 때 아랫라인이 아주 중요하다.
6. 서울 서대문구 연희맛로에 냉면맛집 하나가 있다.
7. 아기용품 가게에 다양한 유아 덧신류가 있다.
8. “김다라”의 이름에는 디글리을 두 자음이 들어 있다.
9. 수빈이는 학교에서 꽃리스를 만들어 봤다.
10.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로봇을 더 좋아한다.
11. 요즘 야구표를 티켓링크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12. 광호는 어제 경기도 연천군 삼꽃리에 갔다.
13. 준영이는 어제 저녁에 당근라페를 먹었다.
14. 금강산에는 300여 종의 버섯류가 분포되어 있다.
15. 아이들은 성장할 때 야채류를 많이 먹어야 한다.
16. 롯데아웃렛은 서울 금천구 벚꽃로에 위치한다.
17. 최근에 남성용 스킨로션도 많이 나왔다.
18. 서인이는 집에서 버섯라면을 끓여 먹었다.
19. 요즘 지하철은 대부분 여섯 량으로 되어 있다.
20. 우리나라 사람들이 라면을 즐겨 먹는다.
21. 콜라 한 병은 몇 리터 정도 되나?

22. 민정이는 일본에서 벚꽃라떼를 먹어 봤다.
23. 회사의 리더는 회사의 발전에 아주 중요하다.
24. 경기도에서 공익제보 핫라인을 설치하였다.
25. 어제 마트에서 휴지 여섯 롤을 무료로 받았다.
26. 라떼는 뜨거운 우유를 곁들인 커피 중의 하나이다.
27. 이번 농구경기 중에서 3점 슛률이 아주 높았다.
28. 무한 리필집에서 고기를 마음껏 리필할 수 있다.
29. 준영이는 한자 노끈 리를 쓸 줄 안다고 한다.
30. 이 탑은 옛 러시아 공사관의 흔적이다.
31. 복싱경기에서 한국 선수가 첫 라운드에서 이겼다.
32. 현준이는 지난주에 충청북도 동안리에 갔다.
33. 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뒷라이닝을 교체할 수 있다.
34. 조선시대의 수도는 도성 밖 몇 리까지를 범위로 정했을까?
35. 요즘 치킨집에서는 다양한 치킨류가 판매되고 있다.
36. 유빈이는 어제 카페에서 팔라떼를 시켜 먹었다.
37. 우리 동네에 옷리풀 잘하는 데가 있다.
38.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한다.
39. “김성란”의 이름에는 시옷리을 두 자모가 들어 있다.
40. 공장에서 만드는 엿류로는 물엿, 맥아엿 등이 있다.
41. 최근 눈 레이저 수술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42. 수영이가 인터넷에서 꽃립스틱 하나를 샀다.
43. 대형마트에 다양한 초콜릿류가 진열되어 있다.
44.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45. 보람이가 신촌에서 숯로스팅 커피를 판다고 했다.
46. 이 운동은 허벅지 바깥라인을 만드는 데 좋다.

47. 단어 ‘나라’에는 니은리을 두 자모가 있다.
48. 전자용어사전에서 리셋틀에 대한 해설을 찾을 수 있다.
49. 연휴기간에 군산에 있는 꽃리도에 가는 사람이 많다.
50. 영어 단어 라인은 선이라는 뜻이다.
51. 최근에 매운맛 라면을 즐겨 먹는 사람이 많다.
52. 인터넷에서 공연 셋리스트를 찾을 수 있다.
53. 복싱 경기는 한 라운드에 3분 정도이다.
54. 며칠 전부터 아웃룩 메일을 설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
55. 이것은 동일한 제품 중에 제일 윙레벨인 것이다.
56. 직원식당에서 고기류를 당분간 리필하지 못한다.
57. 최인정은 흔들림 없이 경기를 줄곧 리드했다.
58. 김아린의 ‘린’은 한자 그릇 린이 아니라 이웃 린이다.
59. 성형수술을 통해 눈라인을 바꿀 수 있다.
60. 동훈이는 인터넷에서 암컷 라이거에 대해서 찾아봤다.
61. 광호는 오늘 굿리치라는 앱을 다운받았다.
62. 요즘 원룸에 사는 대학생들이 꽤 있다.
63. 민준이는 어제 마트에서 풋레스트를 하나 샀다.
64. 인천 로봇랜드는 로봇산업과 테마파크가 결합된 공간이다.

<Abstract>

A study on ‘ㄷㄹ’ sequence in Korean

Xiong, Ya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pronunciation of the ‘ㄷㄹ’ sequence in various words and phrases through a survey. Along with thi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urvey, this paper has also the purpose to discuss questions about what are the conditions for surface form selection of the ‘ㄷㄹ’ sequence, what is the phonological and phonetic motivation for the phonological processes and what is the appropriate description of the derivation from underlying form to surface form.

For the study of the ‘ㄷㄹ’ sequence, a pronunciation survey was conducted on 40 speakers who speak the Central Dialect in South Korea. As a result of the survey, it has been confirmed that all the words and phrases including the ‘ㄷㄹ’ sequence are mostly pronounced as the two surface form types that are /ㄷㄷ/ and /ㄹㄹ/. Based on the result of the pronunciation survey, the conditions involved in the ‘ㄷㄹ’ sequence surface form selection were discussed. The conditions that affect the ‘ㄷㄹ’ sequence surface form are age as a non-verbal condition and the component species (loanword or Sino-Korean word) of the word, the phonological environment which ‘ㄷㄹ’ sequence is in as linguistics conditions.

In addition, the motivation of the phonological process in the ‘ㄷㄹ’ sequence was also discussed. In this paper, the impossibility of pronouncing the ‘ㄷㄹ’

sequence, which is phonetically an ‘implosive–tap’ chain, has been considered as the fundamental reason of the phonological process of the ‘ㄷㄹ’ sequence. Therefore, the sequence that can’t be pronounced must be adjusted in some way and in Korean, the ‘ㄷㄹ’ sequence ultimately changes into /ㄴㄴ/ or /ㄹㄹ/ in order to be pronounced.

Furthermore, the appropriate description of the derivation of /ㄴㄴ/ and /ㄹㄹ/ from the ‘ㄷㄹ’ sequence was also examined. In conclusion, /ㄴㄴ/ is considered to be the result of ‘ㄷㄹ’ sequence applied by ‘l–nasalization’ (forming the intermediate form 'ㄷㄴ') and ‘nasalization’. /ㄹㄹ/ is thought to be the result of the application of the ‘regressive liquidization’ of the /ㄷㄹ/ sequence. In the previous studies, the application environment of ‘regressive liquidization’ was limited to the ‘ㄴㄹ’ sequence only, but in this paper, the application environment of ‘regressive liquidization’ is claimed to have expanded to the ‘ㄷㄹ’ sequence.

Keywords: ‘ㄷㄹ’ sequence, pronunciation, motivation of phonological process, surface form selection, derivation, regressive liquidization

Student Number: 2017–23018